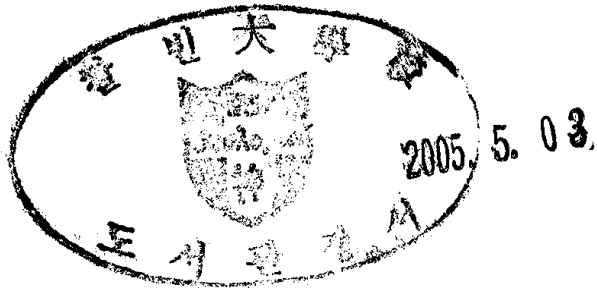


존 칼빈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 카테키즘 교육을 중심으로 -

A STUDY ON JOHN CALVIN'S THOUGHT OF
EDUCATION THROUGH CATECHISM



2004년 12월

칼빈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기독교교육전공

이 성 범

존 칼빈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 카테키즘 교육을 중심으로 -

A STUDY ON JOHN CALVIN'S THOUGHT OF
EDUCATION THROUGH CATECHISM

지도교수 서 신

이 논문을 신학석사 학위(Th. M.)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칼빈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기독교교육전공

이 성 범

이성범의 신학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서 신



심사위원장 김 근 수



심사위원 강 정 진



심사위원 김 지 호



심사위원 노 재 관



2005년 1월

칼빈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신대원을 마치고 계속해서 신학석사과정의 학업도 잘 갈무리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늘 든든한 후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서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마음속에 존경하는 스승으로 남아계시는 박일민 박사님, 언제든지 제 편이 되어주시는 강정진 박사님, 열정적이고 명쾌한 강의로 학문적 도전을 주신 박해근 박사님, 그 밖에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지만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교수님들께 머리를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위에서 늘 지켜봐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계절이 여러번 바뀌는 동안에도 말없이 조그만 미소로 늘 격려를 보내주는 아내의 사랑에 많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더욱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위한 시작으로 여기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군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이 성 범

차 례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3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
4. 연구의 범위	5
5. 용어의 정의	8
II. 칼빈의 시대적 배경과 생애	8
1. 시대적 배경	8
2. 칼빈의 생애	12
III. 칼빈의 신학 사상	19
1. 칼빈의 신관	19
2. 칼빈의 인간관	20
1) 타락 이전의 인간	20
2) 타락한 인간	22
3) 중생한 인간	24
3. 칼빈의 성경관	25
1) 성경에 대한 정의	26
2) 성경의 권위	27
3) 성경의 통일성	29
4. 칼빈의 교회관	30

1) 교회의 본질	30
2) 교회의 표지	33
3) 교회의 기능	33
IV. 칼빈의 교육사상	36
1. 교육 목적	36
2. 교육 내용	39
3. 교육 방법	40
1) 목회적 차원에서의 칼빈의 교육방법	41
2)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한 교수학습방법론	47
V.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실천	51
1. 카테키즘 교육의 필요성	51
2. 칼빈의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한 카테키즘 교육의 배경	56
3.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중요 관점 이해	60
4.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의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차원 이해	65
5. 칼빈의 교육의 장(場)에 대한 이해	67
1) 교회에서의 카테키즘 교육	67
2) 가정에서의 카테키즘 교육	69
3) 학교에서의 카테키즘 교육	71
VI.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현대적 적용과 한계성	74
1.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현대적 적용	74

1) 초신자들을 위한 용도(신앙의 교육)	75
2) 신앙을 체계화하는 용도(신앙의 강화)	76
3) 학습 세례 준비 교육에서의 사용(신앙의 고백)	77
2.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현대적 적용의 한계성	79
VII. 결 론	81
1. 요약 및 결론	81
2. 제언	87
※ 참고문헌	89

약 어 표

Inst.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and
Trans. Ford Lewis Battles. 2 Vol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Comm. Calvin's Commentaries. Translated by J. Pringle.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49.

I. 서론

1. 문제 제기

기독교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즉 만물을 창조하셨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어디든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또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이 하나님과 융화되고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하고 분명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분명하고 확고한 신념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신앙의 근간들이 포스트모던적 사고와 종교다원주의 등의 영향가운데 표류하고 있다.

최근 어느 대형교회의 한 교역자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강연 가운데 종교 다원주의적 발언은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분명한 신앙적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 없는 가운데 표류하거나 혹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분명한 신학적 조명이나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지는 상황이 현실에서 여실히 일어나고 있으며 결코 방치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진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해 준 교리의 가르침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어떤 건물을 유지하고 지탱해주는 기둥처럼 중요한 구실을 한다. 반석위에 세워진 집이 바람과 창수에도 무너짐이 없는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리와 가르침은 기독교의 근간과 핵심으

로서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고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의 신앙과 관련하여 기독교 교육의 근간과 핵심도 역시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와 가르침이라고 확신한다.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육성,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인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교리는 그 기둥과 같은 것이다. 기둥이 없거나 부실하다면 그 결과는 자명한 일이다. 아무리 훌륭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실천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신앙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가 무시되거나 배제된다면 그 결과 또한 불을 보는 것과 같이 자명하다.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세태를 보노라면 절대 관념은 사라지고 상대주의 사고 속에서 영원한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가치의 중심을 옮기고 있다. 세속화의 물결이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우리를 강하게 지배해 오고 있다.

분명히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세속화의 강한 물결 속에 우리의 견고해야만 될 성(城)이 무너져가고 있다.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기둥이 온전하게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지탱해야 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될 최전선에 와 있다.

한국교회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열정을 가져야 한다. 교회가 양적 향상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비뚤어지고 왜곡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한국교회에 있다. 또한 비뚤어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바르게 교육해야 할 책임 또한 한국교회에 있다.

본 논문은 필자의 이와 같은 위기의식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세속화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강한 회귀본능의 표현이다.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한국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를 자처하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칼빈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편파적이거나, 자아도취적이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깨달아서 신앙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그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원리를 신앙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고 실천했던 칼빈의 교육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맞고 있는 사상적 혼란과 기독교적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칼빈의 교육사상을 연구하고 칼빈이 당시에 실천하고 적용하였던 교육의 방법들 중에서 특별히 카테기즘 교육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고 기독교 교육의 신앙적 체계를 세우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는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서 신앙적 기초를 강화하는데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칼빈의 카테기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칼빈의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하여 추구되었던 신앙교육을 21세기의 신학의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그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카테키즘 교육에 힘썼던 칼빈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칼빈의 생애를 고찰해보고,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뿌리가 되는 칼빈의 신학사상, 그리고 그의 신학사상을 바탕으로 실천했던 칼빈의 교육사상과 특별히 그의 카테키즘 교육을 중요시 했던 칼빈의 교육의 실제 등을 문헌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대적 적용에 관한 제언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고자 한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과 의의,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연구의 범위를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질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한다.

제 II 장에서는 카테키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했던 인물인 칼빈의 생애를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살펴볼 것이다.

제 III 장에서는 카테키즘으로 함축되어 총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칼빈의 신학사상을 신관, 인간관, 성경관, 교회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 IV 장에서는 칼빈의 교육사상을 목적과 내용, 방법으로 세분하여 연구하게 될 것이다.

제 V 장에서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실천했던 카테키즘 교육의 실재를 중심으로 카테키즘 교육의 필요성과 카테키즘 교육의 배경, 카테키즘 교육의 중요 관점과 차원 등을 살펴보고 카테키즘 교육의 실천의 장이었던 교회, 가정, 학교에서의 카테키즘 교육에 대하여 논하게 될 것이다.

제 VI 장에서는 카테키즘 교육이 현대에 있어서 신자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신자들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며, 그들의 신앙을 강화하게 하는 용도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언하되 그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성과 개선점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 VII 장 결론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연구를 요약하고, 칼빈의 교육사상에 있어서 카테키즘 교육에 대한 연구의 결론을 맺게 될 것이다.

4.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칼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칼빈의 교육사상에 있어서 카테키즘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되 칼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시대적 배경과 생애에 대해 약술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의 신학사상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될 것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카테키즘 중심의 교육방법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살펴보는 범위로 연구의 범위가 한정될 것이다.

또한 카테키즘 교육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어떤 실제적 통계나 자료들은 다음의 연구를 위해서 남겨두기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5. 용어의 정의

본 논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선행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카테키즘’(Catechism)이다.

‘카테키즘’(Catechism)’이란 말은 헬라어 동사의 현재 부정사 능동태인 ‘카테케인’(κατηχεῖν)에서 유래된다. 이 말은 ‘울리다. 메아리치다, 귀를 기울여 주다, 알려주다, 깨닫게 하다. 가르치다, 배워주다, 보고하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¹⁾

1) F. L. Cross,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p. 249.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들리어지기 위해 말하는 것, 구두로 가르침을 베푸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²⁾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입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뜻하는 ‘구두식 교육’(Oral Instruction)을 나타낸다.

「신앙교육서」라고 불리워지는 독일어의 ‘*katechismus*’의 영어식 표현으로 ‘교리문답’ 혹은 ‘요리문답’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카테키즘’이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일컫는 말로 기독교 진리의 가르침, 즉 기독교 구원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한다.³⁾

좀 더 확대된 의미에서 ‘카테키즘’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입교 전에 있는 청소년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세례에 앞서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알아야 하며,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지도하는 교육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⁴⁾

본 연구에서의 ‘카테키즘’(Catechism)이라는 용어는 ‘신앙교육을 위한 교리교육’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정의하고자 하는 용어는 ‘강론’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설교’에 해당하는 말인데 본 논문에서는 강론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설교’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 용어의 배경이 일본 식민지 시절의 잔재이며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도 ‘설교’라는 용어를 채용하지 않고 ‘강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철 박사는 그의 저서 「장로교회 신조 강해」의 머리말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오류가 없으며 용어선택에 있어서도 가장 적절한 용어가 사용되도록 영감되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원하시는 바요,

2) 누가복음 1:4 ; 사도행전 18:25 ; 로마서 2:18 ; 갈라디아서 6:6

3) 정일웅,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2), p. 311.

4) 유현철, “Calvin의 교리 교육에 대한 현대 교회의 적용 가능성 연구” (목회학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p. 8.

여호와와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잘못된 용어들은 고치고 성경적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필자는 언어는 사상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생각에 찬성한다. 물론 언어의 생명성 때문에 신조어가 생기고, 어떤 말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말들은 그 뜻이 변하기도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본 논문에서는 ‘설교’라는 용어를 ‘강론’으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한다.

5) 이상철, 『장로교회 신조 강해』 (전주: 도서출판 명문, 2002), pp. 1-3.

II. 칼빈의 시대적 배경과 생애

칼빈은 교육적 실천에 있어서 카테키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교육사상과 더불어 교육적 실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의 생애를 살펴보는 선행 연구가 칼빈의 교육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장에서는 그의 교육사상의 배경이 되는 칼빈의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혀보고자 한다.

1. 시대적 배경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문명 세계와 기독교는 새로운 시대로 인도되고 있었다. 중세교회는 봉건주의 사회구조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농경문화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지만 그러나 봉건주의는 무너져가고 있었고 도시들이 성장하고 있었다. 알프스산을 넘어 서북 유럽으로 확산되어온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순화되고 종합되었으며 개혁자들에게 의식적인 신앙 자세와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⁶⁾

칼빈 시대의 사상적 주류를 이룬 인문주의(humanism)는 인간 또는 인간성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옹호하며 완성하려고 하는 사상이다. 이 인문주의는 본래 중세기적인 교권주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탈피하는 하나의 자각운동으로서 인간형

6) 이형기, 「세계교회사Ⅱ」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4), pp. 59-61.

성과 인간해방의 추진력으로 대두되었다.

문예부흥기의 인문주의자들은 교권에 매인 인간성을 해방하여 본래의 인간성으로 확립하고자 하였다. 인문주의가 개인주의적이요, 귀족주의적인 색채를 탈피하지는 못하였지만 종교개혁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개혁주의자들은 인문주의와의 만남을 통하여 고전이 가지는 심오한 사상을 발견하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⁷⁾

칼빈이 인문주의 학문을 연구하고 교양을 쌓기 시작한 것은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를레앙 대학에 입학한 후였는데 칼빈이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가 프랑스의 인문주의자들과 넓게 교제하여 인생과 학문의 시야를 넓힘으로써 훗날 「기독교 강요」⁸⁾를 집필할 때 루터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풍부한 고전에 관한 지식을 인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⁹⁾

한편 기독교는 16세기에 이르기까지는 이와 같은 새역사의 변동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고 높고 두터운 성벽 안에서 안일한 잠에 취해 있었다.¹⁰⁾ 그러나 기독교는 점차 새로운 인본주의를 정복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기존의 교회구조에 불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기독교는 적지 않은 규모로, 의식적으로 대중의 소유가 되어 갔다. 이러한 운동은 서유럽에서 명목상의 개종이 이룩된 방식처럼 위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고 평신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는데 이 물결은 과거의 로마제국 영역 내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있어서 최악의 도덕적 비행을 정화시키면서 점차로 큰 물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¹¹⁾

7)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3), p. 136.

8) John Calvin,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ewis Battles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이하 'Inst.'로 줄여서 표기함.

9) 홍치모, 「종교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1), pp. 136-138.

10) Clyde E. Fant, JR and William M. Pinson, Jr., *20 Centuries of Great Preaching* Vol.3. (Texas: Wordsbooks Publisher, 1971), pp. 7-8.

11)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윤두혁 역 「기독교회사」 (서울 : 생명

15세기 후반에는 장차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여러 인물들이 출생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1455년에 요하네스 로할린(Johannes Reuchlin)이 출생하여 히브리어 연구에 공을 세웠고 1483년에는 아이스레벤 고클에서 루터(M. Luther)가 출생하였고, 1497년에는 그의 동역자 멜랑히톤(Philipp Melancton)이 출생하였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인문주의자이면서 개혁자였던 르훼브르(Jaques Le Fevre)가 태어났고 화란에서는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가, 1482년에는 바젤의 개혁자 외콜람파디우스(John Oecolampadius)가, 1484년에는 쾰빙글리(Huldreich Zwingli), 그리고 1491년에는 마르틴 부처(Martin Bucer)가 출생하였다.

칼빈 시대의 최고의 특성은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의 기운은 봉건사회의 붕괴와 더불어 싹트기 시작하였다. 칼빈이 활동하기 시작할 즈음에는 독일에서 개혁운동이 전개된지 10년이 지났고, 루터를 중심한 신교세력이 형성될 정도였다.¹²⁾ 본 연구의 방향인 칼빈의 교육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의 제네바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화렐(Guillaume Farel, 1489-1565)과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스위스 제네바는 알프스 산맥을 넘는 중요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었고 건전한 상업도시로서 그 나름대로의 이익과 자유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 제네바에는 많은 수도원과 교회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의 도덕적인 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였다. 제네바는 사보이공의 야욕적 침식을 겨우 극복하며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¹³⁾

1532년 6월 9일에 교황을 비판하고 개혁을 부르짖는 플래카드(placard)가 제

의 말씀사, 1980), p. 287.

12)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3), p. 138.

13)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류형기 편역 「기독교회사」 (서울: 한국 기독교 문화원, 1988), pp. 414-415.

네바시에 내걸렸다. 하지만 제네바의 맹방인 프라이브르크는 가톨릭이었고 제네바 정부는 루터주의로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화렐은 제네바에 프로망(Antoine Fromment)을 보내어 교사직을 맡게 하면서 개혁신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런데 1533년 1월 1일에 프로망의 공중강론(public preaching)으로 인해서 제네바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제네바 정부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화렐은 1533년 12월에 제네바로 돌아오게 된다. 결국 제네바는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개신교를 허용하였고 이와 아울러 종교적인 모든 기구들과 제도들도 갱신이 요구되었다. 화렐은 이러한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임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었고, 1536년 7월 제네바를 지나던 한 젊은 프랑스인 친구에게 이곳에 머물러서 개혁사역을 하도록 강권하였는데 바로 그가 칼빈이었다.¹⁴⁾

칼빈이 제네바로 왔을 때는 제네바 시가 교황주의를 제거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고, 화렐과 비레가 그곳의 교회 개혁을 주도하고 있었으나 제네바는 아직도 개혁적인 입장에 확고히 서지 못했으므로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다. 로마 가톨릭측이 다소 열세이기는 했으나 아직 만만치 않은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개혁운동은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개혁교회를 잘 조직하여 알차게 개혁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으며, 화렐은 칼빈이야말로 제네바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 여겨 그에게 제네바에 머물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던 것이다.¹⁵⁾ 칼빈은 이러한 화렐의 강권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겸양과 주저를 극복하고 제네바에 머물기로 하여 그 위대한 제네바시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14) 이형기, 「세계교회사Ⅱ」, pp. 117-118.

15)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pp. 419-420.

2. 칼빈의 생애

존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의 노용(Noyon)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제라드 코뱅(Gerard Cauvin) 이었다. 그는 근면하고 엄격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칼빈의 어머니는 캄브레(Cambrai)의 여인숙 주인의 딸인 잔느 르 프랑끄(Jeanne Le Franc)였다. 제라드는 노용에서 2 마일 쯤 떨어진 항구로서 외스(Oise)강을 가로지르는 폰 레베크(Pont l'Eveque)라는 작은 마을에서 사공(boatman)을 하거나 아니면 물통을 만들고 수리하는 일에 종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¹⁶⁾ 일반적으로 칼빈은 아버지의 예리하고 조직적인 두뇌를 물려받았으며 어머니의 경건심을 이어 받았다고 알려졌다. 물론 그의 용모는 아버지를 닮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그 도시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¹⁷⁾ 노용 주교 비서 그리고 후에 대성당 참사회 소송 대리인과 그리고 주교의 재정 공증인이 되었다. 이런 교회와 관련된 제라드의 직업은 부르주아로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였고 노용에 있는 귀족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했고 후에 칼빈으로 하여금 귀족들의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된다.¹⁸⁾

제라드는 칼빈을 노용에 있는 카페뜨 대학(the college of the Capettes)에 보

16) Emile Doumergue,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p. 9. 프랑수아 방델은 제라드가 공장직공이며 뱃사람 집안 출신으로 본다. 파커는 두 개의 직업을 모두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참고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p. 23.

17) Theodore Beza, "Life of John Calvin", In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vol. 1, ed. by Henry Beveridge and Jules Bonne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p. 21.

18) 칼빈이 출생해서부터 1525년까지 노용시를 통치한 주교는 샤를 드 앙제(Charles de Hangest)였는데, 칼빈은 어려서부터 이 주교 집안의 자녀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후에 파리로 유학을 갈 때 앙제 집안의 세 자녀들과 함께 갔다.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p. 11.

냈다. 그곳에서의 학문적인 프로그램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은 수의 교수진으로 보아 파리에 있는 대학에 비해 교육의 수준은 떨어졌다. 그곳에서의 교육에 만족하지 않은 제라드는 1523년 칼빈이 라 마르세 대학(the college of La Marche)에 입학시켰다.¹⁹⁾ 이 대학은 인문주의적 정신을 칼빈에게 주었다. 그곳에서 칼빈은 유명한 라틴어 교수인 마두린 코디어(Mathurin Cordier) 아래서 라틴어를 배웠다.²⁰⁾ 그는 현대 교육학의 창시자 중에 한사람으로서 칼빈에게 인문주의 철학과 기독교 경건을 소개한 최초의 인물이다.²¹⁾ 칼빈은 자신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석(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Thessalonians)을 코디어에게 헌정하였고, 후에 그를 자신이 세운 제네바 대학에서 라틴어 교수로 청빙하였다. 후에 칼빈은 그 대학에서 몽테규 대학(college of Montaigu)으로 옮겼다. 에라스무스와 로올라를 배출한 그 대학에서 칼빈은 자신의 지적 형성의 큰 발전을 보게 된다. 당시 그 대학에는 베다(Beda), 안토니오 코로넬(Antonio Coronel) 그리고 존 메이저(John Major)와 같은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다. 칼빈은 철학과 수사학, 교부들의 작품들을 배울 수 있었다. 몽테규에서는 루터의 사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칼빈은 열여덟 살 때인 1528년에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에 그는 법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파리를 떠났는데, 그것은 법학 공부가 자기 아들의 보다 확실한 성공의 길이라는 그의 부친의 결정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²²⁾

19)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Century Portra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 9.

20) Alexandre Ganoczy, *The Young Calvin*, trans. David Foxgrover and Wade Provo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7), p. 57.

21) F. Wendel, *Calvin et l'humanism*, p. 11; Alexander Ganoczy, *The Young Calvin*, p. 57. "Steven Ozment, also points out the fact that Cordier introduced Calvin to the scholarly world of humanism", in *The Age of Reform 1250-1550: An Intellectual and Religious History of Late Medieval and Reformation Euro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p. 352.

칼빈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 법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오르레앙 대학(University of Orleans)으로 가서 법학 공부를 했다. 이것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가졌다. 만일 칼빈이 파리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계속 했더라면 이 보수적인 대학교의 교육에 의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한 성직자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르레앙에 와서 인문주의를 접함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는 거기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레스토알(Pierre de l'Estoile) 밑에서 법률과 수사학을 배운다. 그러나 1년 후에 그는 이탈리아의 법학자 안드레아 알키아티(Andrea Alciati)의 명성을 듣고 부르지 대학(University of Bourges)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열렬한 루터파 신자였던 멜케오르 볼마르(Melchor Wolmar) 교수에게서 헬라어를 배웠다. 칼빈은 헬라어 고전은 물론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볼마르의 루터란 영향이 칼빈의 회심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²²⁾ 이런 과정을 통하여 칼빈은 인문주의자로서 원문 해석에 있어서 필요한 훈련을 배웠다. 후에 성경을 해석하는 위대한 학자로 쓰이게 된다.

1531년 5월에 칼빈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칼빈의 아버지 제라드가 세상을 떠났다. 칼빈은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의 생애에 하나의 새로운 전환이었다. 그는 파리 왕립 대학(Royal College)로 옮겨 피에르 다네(Pierre Danes) 밑에서 헬라어를 배우고, 바타블(Vatable)에게 히브리어를 배웠다. 칼빈은 1532년 4월 4일 23세의 나이로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해석」(Calvin's Commentary on Seneca's de Clementia)을 출판했는데, 이 책으로 칼빈은 에라스무스에 버금가는 유명한 인문주의자가 된다. 여기서 칼빈은 에라스무스의 본문비평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

22) Steven Ozment, *The Age of Reform 1250-2550*, 손두환 강정진 공역, 「개혁의 시대 1250-1550」 (서울: 도서출판 칼빈서적, 1998), p. 314.

23) F. Wendel, *Calvin*, p. 23.

고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세네카의 「관용론」은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무참하게 박해하는 것에 대하여 스토아주의적 입장에서 네로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마음에서 쓰여진 책이었다. 칼빈이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해석을 쓴 것은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가 개신교도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하여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였다.

칼빈의 이 책은 내용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칼빈은 종교개혁 운동에 사로잡히게 된다. 칼빈 역시 루터의 성경연구가 종교개혁의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관심을 성경연구에 집중하였다. 칼빈의 친구 니콜라스 콕(Nicolas Cop)이 파리 대학 학장으로 1533년 11월 1일 취임되었을 때 연설문을 도와주게 되는데, 그 연설문의 내용은 기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루터가 주장한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교회의 개혁을 호소하였다. 칼빈이 이 연설문을 직접 썼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도와주었는지 아니면 콕(Nicolas Cop)이 혼자서 썼는지는 계속 논쟁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칼빈은 파리를 떠나 피신해야 했다.

한편 1534년 10월 마르쿠르(Antoine Marcourt)가 미사를 반대하는 조문들을 붙인 사건이 있는 후 개혁자들에 대한 박해가 재개되었다. 프랑소아 1세는 황제에 대항해 독일 신교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프랑스 신교들에 대한 박해는 그들의 무정부주의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칼빈은 복음주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미 집필을 시작한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를 서둘러 완성하여 프랑소아 1세에게 신교도들을 변호하는 서문을 붙여 1536년 3월 바젤에서 출판했다. 이 책은 종교개혁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²⁴⁾

1536년 박해받는 프랑스의 개신교를 변호하고 신앙의 기본적 진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저술된 「기독교 강요」는 처음에는 6장이었지만 점차 개정을 해서 완

24) Elmer L. Towns,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p. 167.

결판은 80장으로 늘어났다. 칼빈은 처음에 「기독교 강요」를 쓴 후에 이탈리아에 들른 후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로 가서 계속 연구하고 책을 쓰고자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하고자 제네바를 거쳐 가야 했다. 가다가 제네바의 급진적 종교개혁자인 화렐(Guillaume Farel, 1489-1565)을 만나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종교개혁에 가담하게 된다.

1536-38년 제네바에 있으면서 「신앙고백서」과 「신앙교육서」를 만들어서 신앙과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교회의 징계규정을 만들어서 도덕생활을 강화하였다. 1538년 의회 선거에서 칼빈의 반대파가 득세하면서 성찬문제에서 의회에 대한 교회의 독자성을 주장하다가 쫓겨 가게 된다.²⁵⁾

제네바에서 추방당한 칼빈은 부처(Martin Bucer, 1491-1551)의 초청으로 스트라스부르그로 갔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그의 프랑스 피난민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며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모임에 프로테스탄트 측 대표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는 1540년 이데레뜨 드 뷰레(Idelette de Bure. ?-1549)와 결혼하여 몇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자녀들은 오래 살지 못했다. 1549년 부인이 죽기까지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갔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기독교 강요」의 증보판을 내었다. 또한 여기서 「로마서 주석을 출판했는데, 칼빈은 이후 계속 성경 주석을 출판해 갔다.²⁶⁾

25)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은 출교 처분을 내려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결정과 모든 시민들이 신조에 동의해야 한다는 제네바 소의회의 결정은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고, 1538년 1월 200인 의회에서는 누구에게도 성찬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으로써 칼빈이 구상한 권징 체계를 부정했다. 1538년 2월 선거에서 선출된 4명의 집행관들은 제네바 안에 베른(Bern)의 영향을 증대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침내 시 당국에서는 목사들에게 성찬식 때 유교병 대신에 베른처럼 무교병을 사용하라는 등의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칼빈은 이런 문제들이 중성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였으나, 시 정부가 교회 일에 관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시의 명령에 불복하고 마침내는 1538년 4월 23일 칼빈을 비롯한 제네바 목사들은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p. 21.

26) Ibid., pp. 21-22.

칼빈이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동안 칼빈을 반대한 친베른파가 베른파의 조약에서 제네바에 불리한 조약을 체결한 사건이 생겼으며, 이 결과 베른파는 약화되고 기욤 화렐과 칼빈을 지지하던 소위 기욤파가 점점 우세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렵게 칼빈을 설득하여, 마침내 1541년 9월 13일 칼빈은 다시 한번 제네바로 오게 되었다.

1541-55년은 칼빈의 어려운 투쟁의 시기였다. 반대자들은 자유주의자들로 여러 규정에 반발 한다. 본토민들은 프랑스에서 이민들이 들어와 시민권을 받자, 자신들의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1543년 반대파가 다시 득세하여 칼빈이 다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마침 그때에 세르베투스 사건이 일어난다. 세르베투스를 중심으로 칼빈파와 반대파가 팽팽하게 맞서게 된다. 그런데 반대파가 선택을 잘못하여 세르베투스를 은근히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의회의 최종 결정은 세르베투스를 처형할 것으로 결론지어 진다. 이는 만약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세르베투스를 살려둔다면 가톨릭 진영으로부터 제네바는 反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이단으로 비난받기 때문이다. 가톨릭 진영으로 둘러싸인 제네바로서는 세르베투스를 살려주자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처형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사건 이후에 반대파는 약화된다. 1554-55년에는 칼빈파가 우세하게 된다. 1555년 이후에는 10년 동안 칼빈 자신의 뜻대로, 직접 다스리지는 않았지만 칼빈의 뜻이 반영되어졌다. 1558년 의회선거 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뽑아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좋은 사회질서가 그들의 모토라고 주장하면서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칼빈은 1559년에 「기독교 강요」 결정판을 낸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아카데미(대학)를 만들어서 유럽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칼빈의 정신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였다. 여기에서는 성경도 가르쳤지만 희랍, 로마 고전도 가르쳤다. 칼빈에게 있어서 아직도 인문주의적인 요소가 계속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네바의 정치는 안정되었으나 칼빈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그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저작 활동을 계속했다. 병문안을 왔던 사람들이 휴식을 권고하면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1564년 5월 27일 칼빈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저작과 사상과 정신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은 유학생들을 통해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III. 칼빈의 신학 사상

앞에서 우리는 칼빈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그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칼빈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있어서 시대적 배경과 생애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사상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신학사상에 대한 이해 또한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연구라고 여겨진다. 본 장에서는 그의 교육사상의 배경이 되는 칼빈의 신학사상을 신관, 인간관, 성경관, 교회관으로 세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혀보고자 한다.

1. 칼빈의 신관

칼빈사상의 핵심원리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이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뛰어나신 자이시다. 그리하여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다. 칼빈 개인의 좌우명은 ‘*Coram Deo*’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면전에서’란 뜻이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보았으며 그는 성경을 통해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자기를 통촉하시는 것을 알았다. 칼빈은 범사에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였다.²⁷⁾

신학적으로 볼 때 칼빈주의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sov^{er}eignty of God)이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중심에 계신다. 만물 위에 뛰어나신 절대주권, 그것은 그의 독점적인 권한이다. 칼빈은 하나님께

27) Simon Kistemaker, 「칼빈주의」, 김정훈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p. 94.

서 이 세상을 구속하셨으며 또한 그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도자가 되신다. 그는 만사가 코람데오(*Coram Deo*) 곧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生)의 단 한 국면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²⁸⁾ 칼빈은 그의 전 존재, 곧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으며 또한 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자이시다.²⁹⁾

2. 칼빈의 인간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1권 15장에서는 창조 당시의 인간을 그리고 2권 1장에서 4장에서는 타락한 상태의 인간을 각각 다루고 있다. 그러나 타락한 상태의 인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심에 대하여 2권 6장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칼빈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타락 이전의 인간, 타락한 인간, 그리고 중생한 인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타락 이전의 인간

28) *Inst.*, 2.8.16.

29) Samuel Dunn, 「요한 칼빈의 신학 진수」, 김득용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pp. 20-24.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기록이 나온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왕관이다. 칼빈은 창조의 순서 가운데서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배려가 나타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유익하고 행복하다고 예견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을 뜻한다.³⁰⁾ 만일 우리가 하늘이나 땅에서 인간에게 맞서는 어떤 것을 본다면 그것은 창조의 한 부분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세계 속에 이룩해 놓으신 아름다운 질서가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³¹⁾ 세계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지 인간이 세계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랜스(Thomas. F. Torrance)는 “세계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성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만물들과 구분되며, 만물의 영장으로서 존재한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³²⁾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로서 교대로 사용되고 있다.³³⁾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첫째로 넓은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말할 때, 그것은 전체적으로 육체적 형체에 관한다고 한 오시안더(Andreas Ociander)의 주장을 논박한다. 왜냐하면 칼빈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육체적 형태에도 적용되어 육체의 어느 부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섬광이 비추이지 않는 곳이 없지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은 외형적인 것 이상의 자연적 은사들과 기능

30) *Inst.*, 1.14.2. ; 1.14.22..

31) *Inst.*, 1.14.21.

32) 창세기 1:26-27 “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3) *Inst.*, 1.15.3.

들 속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³⁴⁾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모든 본성의 완전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아담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감정을 이성애 순응시키고 감각을 바른 질서로 조정함으로써 진정 모든 좋은 은사들로 우수성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완전을 말한다.³⁵⁾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자리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다.

둘째로, 좁은 의미에서 외적인 표징들에 의해 두드러지게 보존되고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이라는 사실이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외형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형상의 가장 적합한 자리는 영혼이다.³⁶⁾ 하나님은 그 자신을 인간 안에 두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고, 거울 속에서도 같이 자신의 영광을 지켜보시기를 기뻐하셨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전형에 따라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음을 받은 전형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³⁷⁾

결론적으로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인간의 육체적인 기능에 나타난 우수성, 완전성을 말하고, 둘째로 이러한 육체적인 기능은 영혼에 상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것이라고 본다.

2) 타락한 인간

칼빈의 인간론을 이해하는 다른 하나의 측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본래의 위치에서 타락하여 범죄자가 되었다는 점이다.³⁸⁾ 인간이 범죄하

34) *Inst.*, 1.15.3.

35) *Inst.*, 1.15.3.

36) *Inst.*, 1.15.3.

37) *Inst.*, 1.15.3.

38)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p. 167.

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실수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도발이다.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생의 목적이 없어졌고, 그래서 인간은 누가복음 15장에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³⁹⁾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우수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인간의 타락으로 그의 처음 것을 잃고 곤궁에 빠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창조된 인간과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자기인식에서 따로 떼어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담이 그의 원래의 상태에서 타락했을 때, 이 변절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만 무섭도록 추한 것 뿐이다.⁴⁰⁾ 즉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은 그의 존재의 전체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훼손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뵈트너(Bottner)의 말과 같이 인간은 마치 날개가 부러진 새가 다른 나무로 날아가고 싶으나 실제로 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체적이고도 철저히 부패한 존재이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잔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가능성을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⁴¹⁾

칼빈에 의하면 원죄는 인간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행동인 줄 알면서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인간의 죄는 인간의 어떤 부분만의 과오라고 규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의미로 나타낸다. 이 원죄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육

39)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82), p. 166.

40) *Inst.*, 1.15.4.

41) *Inst.*, 1.15.4.

신의 일을 하게 한다.⁴²⁾

3) 중생한 인간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셔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인간이 없다.⁴³⁾ 우리 인간이 타락의 현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이다.⁴⁴⁾

칼빈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선택(unconditional election)을 하셨다고 말하였다. 이 선택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사랑에 의한 것이지 결코 선택된 자의 현재나 미래의 어떤 성품이나 행위 때문에 된 것이 아닌 것이다. 인간의 전적타락과 무능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고서는 인생에게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며 인간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는 그들 자신의 악한 욕구와 욕망 때문에 영적 죽음의 고통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선택되었으면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 하므로 죄악을 지닌 진노의 자식들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극진하신 사랑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사업을 시작하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42) *Inst.*, 2.3.5. ; 1.15.8.

43) *Inst.*, 2.7.5.

44) *Inst.*, 2.6.1.

에 얹게 하는 것이다. 이 성령은 성부의 뜻과 즐거움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불가항력적(irresistible grace)인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⁴⁵⁾

하나님은 어떤 자를 전적타락(total depravity)에서 구원하시려고 선택하면 그들의 구원과 성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그를 부르실 뿐 아니라 거룩한 새생명과 의와 참된 지식을 보호하실 것을 작정하신다.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는 선택받은 자가 확신을 갖고 끝까지 참도록 보호하고 격려해 주신다.

3. 칼빈의 성경관

칼빈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⁴⁶⁾ 그는 요한이서와 요한삼서 및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전 신약 성경에 대한 주석을 썼으며, 또한 모세 오경, 여호수아, 시편, 이사야서의 주석,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구약 선지서들에 관한 그의 강해와 주석들을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그의 신학적 저작들, 유럽 전역의 여러 인물들에게 보낸 방대한 서신들 등 그의 글들에는 모두 성경이 깊게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론의 여지없이 칼빈의 신학은 ‘말씀의 신학’(Theology of the Word of God)이었다. 그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의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는 확신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⁴⁷⁾

45) Samuel Dunn, 「요한 칼빈의 신학 진수」, pp. 38-44.

46) Jack B. Rogers, Donald K. McKim,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 An Historical Approach*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79), pp. 89-116.

47) Sinclair B. Ferguson, et. als, *New Dictionary of Theology* (Illinois: Intervarsity Press,

칼빈의 성경관을 성경에 대한 정의와 성경의 권위, 성경의 통일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경에 대한 정의

‘오직 계시의 한계 내에서만 신학을 한다’(Theology within the limits of revelation alone)는 자신의 원리를 철저히 고수했던 칼빈은 성경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첫째로, 인간들의 부주의와 태만과 허황된 생각으로부터 끼쳐질 피해와 변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진 하나님 자신의 조치이다. “진리가 한결같이 대대로 언제나 살아 있고 땅 위에서 알려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조상들의 손에 맡기셨던 계시들이 기록으로 보고되기를 원하셨다.”⁴⁸⁾ 고 그는 말한다.

둘째로,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바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이라고 칼빈은 생각한다. 성경은 마치 노인들이나 약시자(弱視者)들에게 있어서 안경(spectacles)과 같은 것으로, 그것 없이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없다고 그는 설명한다.⁴⁹⁾ 그에 있어서의 성경은 ‘모든 세대에 있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섭리’이다.⁵⁰⁾

셋째로,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최선의 수단일 뿐 아니라 유일한 원천이다. “하나님은 결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가 그의 진리가 마지막 날까지 공포되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곳은 성경에서 뿐이다.”⁵¹⁾

1988), pp. 120-123.

48) *Inst.*, 1.6.2.

49) *Inst.*, 1.6.1.

50) *Inst.*, 1.6.2.

라고 칼빈은 단언한다.

넷째로, 칼빈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원천으로서 유일할 뿐 아니라 완벽한 것이다. 그는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며, 그 속에는 알아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빠진 것이 아무 것도 없듯이, 가르쳐진 것으로 알 필요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⁵²⁾고 선언하는가 하면,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2) 성경의 권위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에 대한 재발견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종교개혁의 숙원 가운데 하나였고 또 개혁자들이 로마교회나 교황의 세력을 논박할 때 가장 중요한 무기가 성경의 권위였다.⁵³⁾

칼빈은 성경 권위의 기초를 성경의 신적 기원에 두고 있다. 즉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다’라는 주장은 결국 성경의 권위는 그 말씀의 주인인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로마 가톨릭의 입장을 배척했다.⁵⁴⁾ 그 대신 그는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엡 2:20).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터라면 교회가 존재하기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들의 가르침이 권위를 지녀야 옳다.⁵⁵⁾ 그러므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성경을 하늘에서 내려

51) *Inst.*, 1.7.1.

52) *Inst.*, 3.21.3.

53) James E. McEwen, *The Faith of John Knox*, (London: Lutherworth Press, 1961), p. 27.

54) *Inst.*, 1.7.1.

55) *Inst.*, 1.7.2.

은 것으로 여길 때만이 성경은 신자들 가운데서 온전한 권위를 갖는다.⁵⁶⁾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거룩한 입술을 여신다.⁵⁷⁾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그분 자신의 말로 말씀하시고 계신다.⁵⁸⁾ 성경은 글로 적히고 날인된⁵⁹⁾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⁶⁰⁾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나 가르침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칼빈이 보기에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의 내적증거라는 수단을 거쳐야 우리는 성경의 기원과 권위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우리 확신을 인간의 이성, 판단, 추측보다 더 높은 곳에서, 즉 성령의 은밀한 증거에서 찾아야 한다.’⁶¹⁾ 성경에 대한 최상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 합리적인 증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들이 신성하게 말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성령의 증언은 모든 이성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또 말씀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 인침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칼빈은 말한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받은 것을 성실하게 선포했다는 사실을 믿도록 우리를 설득해야 한다’⁶²⁾고 칼빈은 믿었다.

성경의 권위는 믿음을 통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증

56) *Inst.*, 1.7.1.

57) *Inst.*, 1.6.1.

58) *Inst.*, 2.8.12.

59) *Inst.*, 4.8.6.

60) *Inst.*, 1.7.4.

61) *Inst.*, 1.7.4 ; 3.1.1. ; 3.1.3.

62) *Inst.*, 1.7.4

거하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확립된다. 칼빈에게 있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 능력도 효력도 갖지 못한다. 말씀에 합당한 경의와 위험이 드러질 때에만 성령이 그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이 진리를 성령은 본래부터 가지고 계시며, 이 진리를 성령은 성경에서 표현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또 그 동일한 성령을 내려 보내셔서 말씀의 효과적인 확증을 통해 자신의 일을 완성하신다.⁶³⁾

요약하자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서 기원한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3) 성경의 통일성

칼빈의 성경관을 말함에 있어서 신·구약을 모두 기독교적으로 통일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이미 그리스도 위에 기초되어 있으며 ‘동일한 신앙’ 위에 근거되어 있다고 본다.

‘신·구약의 한 목적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증거로서는 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다이킨(A. Dakin)은 말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헌터(A. Mitchell Hunt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아래서와 그 십자가를 의미 있게 하는 방향에서 읽어야 한다. 성경을 올바르게 알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갈보리 꼭대기에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한다.⁶⁴⁾

이는 곧 성경의 주인이며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칼빈은 구약성경을 신약성경 안에서 읽거나 신약성경을 구약으로 돌아가서 읽거나 하

63) *Inst.*, 1.9.3.

64) A. Mitchell Hunter, *The Teaching of Calvin* (Glasgow: Jackson and Co., 1920), p. 90.

는 형식으로 신·구약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신약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곧 구약 안에서 이미 약속이라는 것으로 제시되었다고 봄으로써 신·구약의 구속 복음은 모두 그리스도를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성경에서 구약성경을 신약성경보다 저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칼빈은 66권의 성경이 저자의 성격, 기록된 연대, 환경 등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르지만, 이 단편들이 통일성이 없는 수집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유기체적인 통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신·구약은 모두 동일한 말씀을 증거한다. 양자가 다같이 한편은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한편은 저러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⁶⁵⁾ 그러므로 칼빈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일한 사명에서 통일되어 있음을 말하여 구약과 신약의 매개, 내용, 형식에 있어서도 통일성을 가지게 됨을 역설했다.⁶⁶⁾

4. 칼빈의 교회관

칼빈의 교회관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표지 그리고 교회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1) 교회의 본질

65) Wilhelm Niesel, 「칼빈의 신약」,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p. 102.

66)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p. 93.

성경은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한다. 즉 ‘포도나무’ 개념, ‘지체’의 개념 등을 들 수 있다. 칼빈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도 이와 동일하다. 그는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백성’⁶⁷⁾으로, ‘그리스도의 몸’⁶⁸⁾으로, 그리고 ‘성도들의 어머니’⁶⁹⁾로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즉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백성을 아시며(딤후 2:9), 바울의 말과 같이 그들에게 모두 인을 치셨기 때문(엡 1:13)이라고 말한다.⁷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을 가시적 교회의 구성원들만을 말하지 않고, 죽은 자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선민, 우주적 교회 즉 보편적 교회를 의미한다. 그는 교회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과 그의 내적 부르심을 생각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아시며’(딤후 2:19), 바울의 말과 같이 그들에게 모두 인을 치셨기 때문이다(엡 1:13). 그들은 하나님의 훈장을 달고 있어서 버림받은 자들과 구별된다. 그러나 거대한 군중 속에 보잘 것 없는 작은 무리가 숨어 있고 몇 개의 밑알이 쭉정이 더미 속에 묻혀 있으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만 완전히 맡겨야 한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다.⁷¹⁾

이것이 그의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이다. 그러나 그는 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신앙고백을 토대로 하여 모인 무리를 말하지만, 거기에는 택함 받지 못한 무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⁷²⁾

칼빈은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한다. 칼빈은 ‘교회를 위한 목회

67) *Inst.*, 4.1.8.

68) *Inst.*, 4.1.5. ; 4.1.9. ; 4.3.2.

69) *Inst.*, 4.1.4.

70) *Inst.*, 4.1.2.

71) *Inst.*, 4.1.2.

72)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서울: 풍만출판사, 1985), p. 46.

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바울의 사상을 인용하여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목회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신자들은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전제로 하고 있음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고(엡 4:12), 우리는 범사에 머리가 되시는 그에게까지 자라게 된다(엡4:15).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⁷³⁾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상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매우 명백히 말해준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그 통치자가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통치자의 자격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규례를 만드시고, 직원들을 구성하시고, 그 직원들에게 권위의 옷을 입혀 주시며, 또한 현재 이 교회 안에 계셔서 직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며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모든 다른 지체들과의 연합을 강조한다.⁷⁴⁾

칼빈은 교회를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로 구분하였다. 가시적 교회는 세상에 흠어져서 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모든 무리들이다. 이것은 영적인 교회 안에 있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몸이다. 이것을 보편적 교회라고 부른다. 칼빈이 교회에 대해서 표현한 다음의 말은 그의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의 구분을 잘 표현하고 있다.

사실상 교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창조 이후로부터 존재해 온 모든 선택된 자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교회'라는 이름은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때가 많다.⁷⁵⁾

73) *Inst.*, 4.1.5.

74) *Inst.*, 4.1.5.

75) *Inst.*, 4.1.7.

후자의 교회 안에는 이름과 외양 이외에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많은 위선자들이 섞여 있는 반면에 전자의 교회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

2) 교회의 표지

칼빈의 교회의 표지를 말씀과 성례라고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며, 또 듣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을 따라 성례를 지킬 때에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엡 2:20). 교회의 표지의 적용에 있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편적 교회는 모든 나라에서 모은 큰 무리다. 그 보편적 교회는 나누어져 여러 곳에 퍼져있지만 거룩한 교리의 한 진리에서 서로 일치하며 같은 종교 생활의 유대로 연합되었다.⁷⁶⁾

이전 의미에서 그는 개교회의 권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개교회도 보편교회의 일원으로, 보편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3) 교회의 기능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가져오신 구원과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일

76) *Inst.*, 4.1.9.

으키고 키우며 목적지까지 향상시키려면 무지하고 게으르고 또 경박한 우리들에게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약점을 대비해서 필요한 보조 수단도 첨가하셨다. 또한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 목사와 교사들을 임명하셔서(엡 4:11)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우선 성례를 제정하셔서 성례에 참가한 우리는 그것이 신앙을 자라게 하며 돈독 하는데 매우 유익한 보조 수단임을 느낀다.⁷⁷⁾

그의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 선포’, ‘복음 전파’ 그리고 ‘가르침’의 사명을 교회 주셨고, 동시에 그 가르침은 선택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내적은총의 보이는 징표인 성례전을 행함으로 입증되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노력은 교회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르치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치는데 경주하여야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의 은총을 항상 선포해야 된다고 칼빈은 말한다. 교회 안에서의 화해의 선포는 곧 목회적인 기능이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화해의 사신은 선교적 기능이다.

먼저 교회의 목회적 기능에 있어서 칼빈은 교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 선포의 방편으로서 세 가지 목회의 기능을 시사한다. 첫째는 ‘말씀의 선포’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으로만 다스려져야 한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가 말하는 말씀선포는 성경에 증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성례전의 집행’이다. 칼빈은 성만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성도의 훈련’이다. 말씀과 성례전과 같은 성격의 기능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칼빈은 교육과 훈련을 아주 강조하였으며 그의 사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교회의 선교적 기능에 대하여 칼빈은 교회 전체가 사도와 예언자의 가르침에

77) *Inst.*, 4.1.1.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도적 사명이 있음을 전제하였다. 칼빈의 신학 사상의 틀 속에서 교회의 선교적 기능은 모든 성도의 '생업에의 소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해된다.⁷⁸⁾ 주님은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삶의 행위에서 부름을 의식하도록 요구하신다. 칼빈은 또한 교회는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말한다. 이런 것이 칼빈이 제네바시의 개혁운동에 직접 가담한 이유였다.

78) *Inst.*, 4.14.16.

IV. 칼빈의 교육사상

칼빈은 교육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저서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교육적 실천을 통해 그의 신학사상은 풍부하게 표현되었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교육과 신학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의 신학사상에 근거한 교육적 실천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교육사상을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방법으로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 목적

칼빈은 교육과 신학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신학을 이론적 근거로 한 교육 이념은 교회나 가정은 물론 사회 일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신학과 교육은 필요 불과분의 관계이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이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교육되어지고 전해지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인간 중심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 교육이나 학교 교육은 신학적 목적에 봉사하는 신학 교육이었다. 그 결과 신학은 교육 이론과 그 실천에 기초를 제공하며, 동시에 교육의 목적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⁷⁹⁾

칼빈에게 있어서 모든 가르침의 목적,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79)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2), p. 194.

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 또한 성도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 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이었다. 칼빈이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창조물의 행복은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이다.⁸⁰⁾ 다음의 제네바 교리문답은 그의 교육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다.⁸¹⁾

Master : 인간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Scholar :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Master :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Scholar :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Master :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Scholar : 위와 같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의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교육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궁극적인 교육의 목

80) Ibid., pp. 194-195.

81) Calvin,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in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ed. and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vol. 2, Tracts, Part 2, p. 37.

Master : What is the chief end of human life?

Scholar : To know God by whom men were created.

Master : What reason have you for saying this?

Scholar : Because He created us and placed us in this world to be glorified in us. And it is indeed right that our life, of which Himself is the beginning, should be devoted to His glory.

Master : What is the highest good of man?

Scholar : The very same thing.

적으로 삼아야 한다.

칼빈의 이 교육목적은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도 적용된다. 뒤에 언급되겠지만 제네바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칼빈은 종교 교육 목지 않게 일반 교육을 중시했다. 왜냐하면 일반 학과는 하나님의 지식을 충분히 알도록 돕는 기초 과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고린도전서 주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신으로부터 발원되지 않고 확고하게 배워야 할 가치가 내포되어 있고, 정당한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러한 교양과목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성령으로부터 발원되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경험되어지거나 유래되어지는 유익함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만 한다.⁸²⁾

칼빈에게 있어서 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을 모두 포괄하여 모든 교육에 있어서의 그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칼빈이 교육 사상에 있어서 일차적 목적이 동시에 핵심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칼빈의 교육 과정은 내용 중심적이거나 방법 중심적이거나, 또는 학생 중심적이 아닌, 목적 중심적이다. 즉 하나님 중심적이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학문 영역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⁸³⁾ 칼빈에게 있어서 종교교육뿐 아니라 세속교육도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함에 귀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82) *Comm.*, I Corinthians, p. 73. “... those arts ... that have nothing of superstition, but contain solid learning and are founded on just principles, ... no doubt ... have come forth from the Holy Spirit; and the advantage which is derived and experienced from them, ought to be ascribed exclusively to God.”

83)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p. 200.

2. 교육 내용

칼빈은 교육의 주제 내용을 「기독교 강요」에서 매우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는 교육의 내용으로서 두 가지 지식을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이 두 지식은 서로 밀접한 연관 속에 있으며,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존한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의 주제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또한 이끌어내야 하는 두 개의 출처를 깨닫게 된다. 즉 성경과 자연을 통해서 계시된 지식이다. 따라서 칼빈은 두 종류의 주제에 기초한 두 종류의 교육을 구분했다. 기독교 교육, 즉 신학 그 자체에 대한 가르침이고, 예술과 과학에 관한 세속적 교육이다. 학교에서의 세속교육도 칼빈이 중요하게 여겼다. 그 차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 실현에 귀결하게 된다.

현대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칼빈의 교육 내용은 권위적이고 성경과 신학에 기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칼빈은 성경으로부터 직접 교육의 주제 내용을 이끌어냈고, 성경의 메시지에서 그 권위를 찾았다. 교육의 주제 내용으로 칼빈은 진실하고 오류가 없는 오직 하나의 원천, 즉 성경을 확실하게 받아들였다. 성경은 칼빈의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였다. 흠 없는 완전한 구원의 메시지의 충실한 전달은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었다. 교육의 내용인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문제이고, 이것은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으며,⁸⁴⁾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로 정리되어 카테키즘 교육의 핵심으로 체계화 되었다.

84) 황성철, 「칼빈의 교육목회」, pp. 200-205.

3. 교육 방법

칼빈은 교육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교육학자나 교육 사상가는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천한 교육 실천가였다. 이 사실은 그의 교육 방법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칼빈은 교육의 방법들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당시의 교육방식대로 교육을 받았고 또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는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⁸⁵⁾ 철저한 훈련을 통한 교육을 중시하였다. 인간은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기독교 강요」에서의 다음과 같은 그의 표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평생 배우는 자로서 우리의 전 삶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떠날 수 없다.⁸⁶⁾

따라서 그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고, 평생 동안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는 교육을 실천하였다. 그러한 칼빈의 교육의 방법은 제네바에서의 그의 사역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필자가 칼빈의 교육방법을 논함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음을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칼빈의 교육방법을 목회적 차원

85) *Inst.*, 2.3.1-6. "The intellect and will of the whole man corrupt. The term flesh applies not only to the sensual, but also to the higher part of the soul. This demonstrated from Scripture."

86) *Inst.*, 4.1.4. "For our weakness does not permit us to leave the school until we have spent our whole lives as scholars."

에서와 교수학습방법 면에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목회적 측면에서 칼빈의 교육방법을 살펴본다면 강론을 통한 교육, 치리를 통한 교육, 저술을 통한 교육 등의 방법론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수학습방법의 측면에서 그의 교육방법을 살펴본다면 그 한계를 축소하여 그의 사역 가운데 특히 본 연구의 중심에 있는 카테키즘 교육에 있어서 그가 사용하였던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교육하는 교수학습방법론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칼빈의 목회적 차원에서의 교육방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한 카테키즘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목회적 차원에서의 칼빈의 교육방법

① 강론을 통한 교육

칼빈에게 있어서 강론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신자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교회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간주하였다. 또한 목회자로서 칼빈은 신앙 공동체의 삶에서 강론을 하나의 은총의 수단으로 이해했으며, 강론이 교리 교육과 깊은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입과 혀를 성별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이 들리게 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구원의 교리를 기꺼이 그리고 공손히 받아들여야 한다.⁸⁷⁾

87) *Inst.*, 4.1.5. “... for among the many noble endowments with which God has adorned the human race, one of the most remarkable is, that he deigns to consecrate the mouths and tongues of men to his service, making his own voice to be heard in them. Wherefore, let us not on our part decline obediently to embrace the doctrine of salvation, delivered by his command and mouth.”

강론은 곧 교리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는 강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리를 전달하며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였다. 즉, 칼빈에게 있어서 강론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로서 그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는 은총이 수단이면서 동시에 필연적으로 교육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론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교리이며 가르침이라는 관점에서 성도들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처럼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교리의 가르침에도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칼빈은 강론을 성경에 대한 강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의 적용이라고 보았다. 그는 성경을 한 자, 한 자 풀어낸 것처럼, 성경을 회중의 삶과 그 삶의 현장에 한 구절 한 구절 적용시켰다.⁸⁸⁾ 따라서 그의 강론은 항상 교화를 위한 실제적인 관심에 있었고, 제네바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 속으로 직접 성경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강론은 교회원의 신앙 진보를 위한 결정적인 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⁸⁹⁾

이와 같은 칼빈의 강론에 대한 이해는 그의 목회를 통해서 실천되었다. 처음부터 칼빈의 강론은 교리문답이었다고 평가될 정도로, 그의 강론은 교리적이며 더욱이 그 교리의 중심에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가 위치하고 있었다. 그는 강론을 통하여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에 나타난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진리를 가르치고, 이에 대하여 논증했다. 또한 그는 신자들이 강론을 통하여 교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그에 대한 이해를 가지며 성령의 역사로 교리에 대한 믿음이 확증되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였다.⁹⁰⁾

88) 칼빈은 본문을 중심으로 강론을 하였는데, 그의 강론은 말씀에 대한 해석, 교리적 의미, 그리고 삶의 적용과 결단을 촉구하는 교훈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거나 또는 가르침과 적용이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89) 정일웅, 「교육 목회학」, p. 329.

90) 정준모, “존 칼빈의 교리교육론에 관한 연구”, (신학박사 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칼빈은 강론을 통하여 한 편으로는 교리를 가르치고, 다른 한 편으로는 훈계하고 권면하고 인도하고 도전과 결단을 주었다. 그는 기독교인은 평생동안 ‘하나님 학교’의 학생이며, 학생으로 학교에 가야하며,⁹¹⁾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강론 듣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⁹²⁾ 왜냐하면 강론은 다른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믿음을 형성시켜서 증대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강론을 통해 훈계를 받고 자극과 격려를 받으면서 교리와 믿음, 그리고 거룩함 속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② 치리를 통한 교육

칼빈은 참된 교회를 구성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도구로서, 강론과 교육뿐만 아니라 권징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권징은 제네바 교회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권징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전파와 성례의 시행을 실제적이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칼빈은 다른 신학자들과 달리 치리를 교회의 표지로 보지 않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보조 장치’나 혹은 ‘복음의 교리를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⁹³⁾ 치리 혹은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보지 않는 신학자들은 칼빈이 교회의 권징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적용으로 보았으며, 교회의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나 성례전의 바른 집전과는 달리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형식에 해당한다고

2002), p. 159.

91) *Inst.*, 4.1.4.

92) *Inst.*, 4.1.5.

93) *Inst.*, 4.1.10. 칼빈은 교회의 표지로 ‘말씀 선포’와 ‘성례’ 두 가지를 말한다.

보아 이를 교회의 표지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한다.

육신의 원동력이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치리는 말씀에 의존하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여겼던 칼빈은 치리와 교리를 서로 관련시켰다. 교리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위한 규칙을 부여할 때, 치리는 교회의 교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행하여지도록 하는 교리를 위한 수단과 보조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그는 보았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과제는 교회 안의 나약하고 게으르고 불완전한 성도들에게 보조물과 보호막을 주고, 교육적인 척도를 통하여 이들을 선도하고, 훈계하고,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그는 치리에 의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억제시키고 길들이며 교리에 무관심한 자들에게 도전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⁹⁴⁾

칼빈은 권징의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한다.

첫째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마치 악하고 타락한자들의 음모 단체인 듯한 인상을 주어 하나님에게 치욕이 된다.’고 칼빈은 표현하였다.⁹⁵⁾ 환언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이 악하고 게으른 성도들 때문에 결코 오염되지 않고 생동감 있게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흠을 내거나 그런 시도를 하려는 자들을 치리하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권징의 목적으로 칼빈은 ‘흔히 있는 것과 같이 악한 사람들과 항상 교제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⁹⁶⁾이라고 하였다.

94) *Inst.*, 4.12.1.

95) *Inst.*, 4.12.5. “The first is, that God may not be insulted by the name of Christians being given to those who lead shameful and flagitious lives, as if his holy Church were a combination of the wicked and abandoned.”

96) *Inst.*, 4.12.5. “A Second end of discipline is, that the good may not, as usually

좋은 삶의 본보기를 권장하고 나쁜 삶의 본보기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칼빈은 좋은 본보기의 교육적인 가치를 증명하였고, 나쁜 예증들은 얼마만큼 전염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사람에게서는 좋은 점을 본받기 전에 나쁜 점들을 먼저 본받게 되는 전염되는 부패함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신자들은 치리의 엄격함과 두려움을 통해 나쁜 본보기들을 멀리하고 좋은 본보기로 옮겨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과오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치리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그들이 경고와 두려움과 조심함을 갖도록 한다. 또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의 교류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출교와 다른 치리는 교회의 나머지 성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적인 척도, 즉 과오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교육적인 도구이다.

세 번째, 권징의 목적을 칼빈은 ‘비루한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라고 하였다.⁹⁷⁾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며, 그들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대하여 자성하게 한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지 못하는 이들은 다양한 치리 혹은 징계를 통하여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칼빈은 교회의 치리를 통하여 교회 성도들의 도덕적인 품행을 요구하였고 또한 개선시키고자하는 교정적, 교육적 결과를 기대하였다. 그렇기에 엄격한 치리는 치리 받는 사람이 다시 선할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목적을 넘어서는 안 되며, 보복적인 성격이 없는 벌칙이 반드시 교육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치리를 하나님의 교육과 연관시키면서, 치리가 좁은 의미에서 징계와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교육적 수단으로 보았으며, 그렇기에 치리를 통해 나타나는 벌칙들도 하나님의 구원 교육으로

happens, be corrupted by constant communication with the wicked.”

97) *Inst.*, 4.12.5. “A third end of discipline is, that the sinner may be ashamed, and begin to repent of his turpitude.”

로 이해하였다.⁹⁸⁾

교회는 믿음을 위한 공동체이고 삶을 위한 공동체이다. 교회의 주된 목적은 복음의 전파에 있다. 동시에 칼빈은 나약하고 불완전한 교회 성도들을 보조물인 치리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과 믿음을 통해 나타난 삶을 도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이 치리를 교육적 도구로 본 것은 매우 절절하다고 할 수 있다.⁹⁹⁾

③ 저술을 통한 교육

칼빈은 신학자로서만이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 그러나 신학자로서의 그의 명성 때문에 교육자로서의 그의 공헌이 종종 가려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칼빈의 저서와 목회의 중심은 언제나 교육에 있었다. 칼빈의 목회 사역의 전체 틀 안에서 보면 신학과 교육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지만, 칼빈의 저서가 지니는 교육적 중요성은 교육전문가들에 의해서 대체로 주목받지 못했다. 칼빈이 쓴 교육학 논문은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칼빈 저서의 대부분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술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본 연구의 핵심에 있는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와도 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536년 초판 발행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되어 1559년 최종판이 나오게 된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전체 신학적, 교육적 체계의 기초이다. 화렐의 권고로 제네바에 머물게 되어 1537년에 저술한 「신앙교육서」와 망명 후에 제네바에 다시 돌아와 목회 활동을 재개했을 때 「신앙교육서」를 개작, 확대, 재편성하고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여 1541년에 작성된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본질적

98) *Comm.*, Isaiah 27:9.

99) *Comm.* 2 Timothy 4:2.

으로 교육적이다. 저술 동기가 교육을 위한 것이었으며 실제적으로 칼빈의 제네바 목회에 있어서 카테키즘 교육의 중심에 있는 저작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목회자로서 방대한 분량의 주석을 기록하였는데, 이 주석서들을 통해서 칼빈은 성도들에게 시대적인 부름에 맞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방향 제시와 격려 그리고 경고를 주려고 의도된 저술들로 평가 받고 있다.

2)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한 교수학습방법론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어린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초신자를 포함하여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간결하면서도 매우 유용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다. 본질적으로 칼빈은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술하였다. 칼빈은 카테키즘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매우 깊이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성도들에게 교리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확신시키고, 그 신앙을 지속시키기 위해 칼빈은 처음부터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하여 초신자들이 신앙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도록 배려하였으며 신자들이 기독교의 기초 교리 안에서 깊은 신앙 지식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생동안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하여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신조를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던 칼빈은 제네바 목회 초기에 「신앙교육서」를 중심으로 카테키즘 교육을 시켰고 이를 중심으로 제네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 그가 제네바 목회 사역의 절정을 이룬 시기나 생애 말년에 이르기까지 「신앙교육서」를 개정한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중심으로 교리교육을 실시한 것을 보면 그가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

를 통한 카테키즘 교육을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를 알 수 있다.

칼빈은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카테키즘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와 같은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쳤는가? 그의 교수 학습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였다. 그의 교수학습방법은 학습자의 눈높이에 관심을 두었다. 그의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맞추어 조절하신다는 의미의 ‘*accommodatio Dei*’이다.¹⁰⁰⁾ 칼빈은 그의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고 있다.

실로 하나님은 결정적 표적들에 의해서 때때로 자신의 신적 위엄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대면하여 보이신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지난날에 보이셨던 그 모든 표적들은 모두 다 인간의 교육을 위해서 적절히 고려된 것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불가해한 본질을 인간에게 명백하게 말해주는 것들이다.¹⁰¹⁾

인간은 원래 나약한 존재로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한 상태에 맞게 즉, 인간의 수용능력에 맞게 자신을 맞추어 조절하셔서 교육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함과 인간의 유한함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아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한 인간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의 수용능력에 맞게 당

100) 맥킴은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 상태의 한계와 필요에 맞추어 조절하셨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해석과 모든 신학연구의 핵심적인 특징이다.”라고 하였다. Donald K. McKim,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p. 22.

101) *Inst.*, 1.11.3. “It is true that the Lord occasionally manifested his presence by certain signs, so that he was said to be seen face to face; but all the signs he ever employed were in apt accordance with the scheme of doctrine, and, at the same time, gave plain intimation of his incomprehensible essence.”

신을 조절하셨던 것이다. 칼빈은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절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칼빈은 자신의 신앙교육의 핵심인 교리가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조절될 필요성이 있으며, 신앙교육에 그러한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로, 칼빈은 문답식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였다. 「신앙교육서」에서는 사용되지 않던 방식이 「제네바 교리 문답서」에서는 자주 사용되었다. 물론 이러한 문답식 교수 학습 방법은 루터나 부처 등 다수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칼빈만의 독창적인 산물은 아니지만, 칼빈은 단순히 문답식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낭독과 수업으로 끝나지 않고, 훌륭한 신앙 입문서의 효과를 창출하여 자유롭고 활기찬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칼빈은 교수학습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어떤 경우에는 주입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문답식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토의식을 사용하였다. 그는 처음 성경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주입식으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암송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학년말에는 어떤 문제를 내어놓고 학생들 스스로가 쓰고 답하게 했다. 특히 교리 문답에 대하여는 학생 스스로가 쓰고 고백하도록 하였다.¹⁰²⁾ 그는 카테키즘 교육을 암기 위주의 지식 축적으로만 보지 않고,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물론 칼빈의 문답식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어린이들이 암기하기에는 너무 길다. 어떤 때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자세한 많

102) 오인택,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 1990), p. 171.

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껴서 연속적인 문답이 잘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교리문답은 말하고 듣고 반응하는 깊은 개인적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 칼빈이 어린이들의 양육을 위해 바쳤던 공헌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¹⁰³⁾

셋째로, 칼빈은 반복적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는 매주 교회에서 「신앙 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대한 교육이 더욱 깊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신앙 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처음에는 기독교 교리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점차 심오한 지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경향으로 교리문답은 아이들의 가르치는 면에서뿐만 아니라, 교리문답으로 배우는 교회가 지속적인 말씀을 들음으로써 발전하게 된다는 면에서 그 유용성을 가지는 것이다.

칼빈의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성경에서 출발하고 발전하였다. 칼빈은 「신앙교육서」 서문에 자신의 저술 동기가 교육적인 차원이었다고 하였다. 또 체계적이고 밀도 높은 카테키즘 교육을 위해서 칼빈은 기독교 믿음의 신조를 포함하고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을 착안하여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저술하였고, 교수학습방법론적인 관점을 적용하였다.

103)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pp. 50-51.

V.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실천

이제 필자가 본 연구에 있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중심에 도달하였다. 필자는 칼빈이 실천하였던 카테키즘 교육이 오늘날에 와서도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칼빈의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한 카테키즘 교육의 배경과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중요 관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의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차원을 살펴보고 카테키즘 교육이 실천되었던 교육의 장(場)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카테키즘 교육의 필요성

20세기 이후에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 신학을 도전해왔다.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 종교이고 절대적인 종교라는 전통적인 주장에서 후퇴하여 여러 고등 종교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정의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 아니고 그만이 유일한 구주가 아니라 많은 종교 설립자들 가운데 하나여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에게만 전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설립자들에게도 다 타당하여 그들도 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다 동일한 구원을 제공한다. 즉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종교가 아니라 모든 고등종교가 다 절대자에게 이르는 동일한 길이어서 기독교는 그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주장이 종교다원주의이다.¹⁰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신앙의 이름 아래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원주의의 입장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우위성(優位性) 내지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완결성(完結性)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길들(ways)을 통한 신앙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¹⁰⁵⁾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의 사고가 우리들 현실 가운데도 깊숙하게 파고들었다. 실제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2004년 5월 12일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에서 한 강연이 교계 안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조 목사가 불교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했다는 사실도 이색적이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강조하는 그의 모습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조용기 목사는 17세 때 폐병3기로 선고받았을 때 “죽고 사는 것은 상상의 산물일 뿐이니 초월하라”는 아버님의 불교적 가르침보다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병고침을 받았다는 간증을 했다. 그러나 곧 이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 원효대사의 외침과 일치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는 불교나 기독교나 마호메트교나 평등합니다.”라고 서슴없이 선언하였다. 또한 조 목사는 자신의 동생이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진 것과 자신이 기독교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동시에 인정해야한다고 하면서 “내 것만 절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기독교 구속신앙의 기초를 부정하는 상식 이하의 언급을 하여 물의를 빚은바 있다. 이러한 이해는 복음의 진리성을 위해,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전통을 세워나가기 위해 온갖 잡다한 사상들과 싸워나가면서, 목숨을 바친 신앙의 사람들과 그 신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104) 서철원, “종교다원주의와 구속 신앙”, 『신학지남』, 통권 제250호 (1997 봄호), pp. 131-132.

105) 문석호, “포스트모더니즘과 개혁신앙”, 『신학지남』, 통권 제249호 (1996 겨울호), pp. 141-142.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라나는 십대들의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적 사고(思考)이다. 조지 바나 연구소(George Barna Research)¹⁰⁶⁾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자신이 중생한 크리스천이라고 믿는 십대들 중의 42%가 이슬람교도들, 불교도들, 기독교도들 등 비록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만 같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¹⁰⁷⁾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적 사고(思考)의 팽배가 비단 미국만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의 발생배경을 서철원 교수는 기독교가 본래 주장과 본질을 다 부인하여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 일반 종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¹⁰⁸⁾

종교개혁은 성경에서 출발하고 오직 성경을 표준과 법칙으로 삼았는데 종교개혁이 마무리 되자 개신교회는 기독교의 자기부정을 시작하여 18세기 이래 계몽주의 방식으로 신학을 하여 이성으로 모든 신학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성적인 것만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시의 의존해서 신학하는 것을 버리고 이성의 법칙에 합치하도록 하는 신학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지식의 대상으로 배척하고, 성경에서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시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임을 배척하고 누구나 다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모든 종교도 동일한 가치를 갖고 동등하게 절대자에게로 인도한다는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문제는 출발점에 있다.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

106) 기독교 목회자들과 교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84년 George와 Nancy에 의해 창립된 기관이다.

107) George Barna, *Real Teens*, 이성범 역, 「리얼 틴스: 모자이크 세대에 관한 보고서」(서울: 반도PP, 2003), pp. 167-168.

108) 서철원, *Ibid.*, pp. 132-133.

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교회는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룩해왔다. 그러나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기독교의 근간에 관한 교육은 점점 약화되고 경시되어 왔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의 가르침을 배제하거나 무시한 성장은 무너질 공든 탑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초가 부실한 건축물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성경적 기초가 없는 교회의 성장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튼튼한 신앙의 건축물을 완성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견고히 해야 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진리의 가르침, 기독교 구원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것 곧 '카테키즘' 교육이 요청된다.

필자는 성경이 하나님 지식에의 유일한 안내자요, 인간 삶의 유일한 규범이요, 참 종교의 기초라고 외쳤던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실천이 오늘날 기독교 근간을 흔드는 다원주의를 방어하고 분쇄할 가장 훌륭한 무기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계시 사상과 성경에 있다.¹⁰⁹⁾ 이러한 신학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놀랍게 성장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신자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요약하여서 교육하였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초신자와 어린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었다.¹¹⁰⁾

칼빈의 신학적인 기초는 교리에 그 뿌리를 둔다. 특히 카테키즘은 확실하게 칼빈이 정립하였던 교회론의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탱하는 표지들인

109) 정일웅, 「교회 목회학」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7), pp. 131-135.

110) Bernhard Lohse, 「기독교 교리의 역사」, 차종순 역 (서울: 목양사, 1986), p.18.

말씀과 성례에 관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요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합당하게 집행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교회를 가질 수 있다. 즉 장소에 상관없이 이 두 가지 표지들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곳에는 진정한 교회가 있는 것이다.¹¹¹⁾ 그리고 교리를 통하여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왕성해 질 것이다. 게다가 그의 교육사상의 근본 원리도 교리에 입각되어 정리되었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교리는 교육의 핵심이며 생명인 것이다. 칼빈이 집필하였던 모든 저서와 목회사역의 중심은 교육, 특히 카테키즘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부터 그가 얼마나 교리를 중요시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현대적 의미를 내포하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카테키즘이라는 개념으로 교육의 원리와 목표 그리고 내용 등을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교회의 기초와 교육의 근본이 되는 교리의 총체인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집필하여 신앙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였다.

당시의 종교개혁 운동의 성공 여부가 전적으로 카테키즘 교육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칼빈은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집필하였고, 이것을 중심으로 교육 목회를 실천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의 결실을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었다.

칼빈은 주의 말씀에 계시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며 주장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는 교리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¹¹²⁾ 성경적 권위를 가지는 교리는 그에게 매우 총체적

111) *Inst.*, 4.1.9.

112) *Inst.*, 4.8.15. “... we cannot concede to the Church any new doctrine; in other words, allow her to teach and oracularly deliver more than the Lord has revealed in his word.”

이며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가 교회 교육에 대하여 고심하면서 저술하였던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이러한 총괄적이며 포괄적인 교리의 총체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집약하여 집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칼빈은 카테키즘 교육의 교과서와 같은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 없이는 진정한 신앙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칼빈의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한 카테키즘 교육의 배경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사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 시기는 1536년에서 1539년 사이로 이 때 「기독교 강요」와 이 책의 칼빈 자신의 요약인 「신앙교육서」(Instruction in faith)이다. 두 번째 시기로 볼 수 있는 1541년에서 1564년은 제네바 시 전역의 개혁뿐만 아니라 구라파 전체와 세계 교회의 개혁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시기로 이때에 칼빈은 교회법을 비롯하여 「신조」, 「예배 모범서」, 그리고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어린이와 청소년 및 성인들에 대한 교육에 온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이때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 서구 구라파 지역의 신앙교육과 일반 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1536년 혹은 1537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¹¹³⁾ 이 시기는 본 논문의 제2장 칼빈의 시대적 상황과 생애에서

113) Timothy Tow,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임성호 역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8), p. 50.

언급한 것처럼, 제네바 시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였다. 당시 제네바 시는 옛 체계에 따른 모든 이교도적인 악습을 금지하고 복음과 말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교회 생활에 대한 시도가 요청되었다. 따라서 칼빈은 성도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순수한 성경 진리와 교리를 전수시키는 길 만이 옛 사상과 악습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칼빈은 제네바 시민들이 개혁교회의 원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 기초 교리를 배울만한 교본이 없다는 것과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태만하고 나태하다는 것을 직시하였다. 신앙교육의 현장에 대한 예리한 평가 분석을 통하여, 그는 자녀들에게 효과적인 신앙교육을 실시하여 기독교 신앙교육 내용을 간략하고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앙교육서」의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 때문에 칼빈은 신앙교육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앙교육서」(Instruction in faith)¹¹⁴⁾이다.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그 내용면에서 「기독교 강요」 초판이 작성된 후에 그 내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학적, 사상적인 맥락에서 「기독교 강요」와 서로 매우 강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 작은 책자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단순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대중적인 저작이다. 그가 책의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것은 기독교 교육을 위한 지침서이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시에 적대적 위치에 있던 교회와 논쟁을 벌이거나 로마 가톨릭 교회를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긍정적인 교리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었다.¹¹⁵⁾

「신앙교육서」의 본래의 저술 목적은 영적인 성장과 기독교 신앙교육을 위함이다. 이 책은 그의 초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의 살아 있는 신앙을 매

114) 원문은 'Instruction et Cofession de Foy dont on use en l'Eglise Conseil'이다.

115) John Calvin, 「칼빈의 신앙교육서」,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p. 8.

우 간략하면서도 웅장하게 보여주고 있다. 칼빈이 기독교 신앙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모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목사들 앞에서 질문과 시험을 치르도록 한 후 각자의 역량에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듣게 함으로써 완전한 교육을 이루고자 하는 배경에서 만들어진 「신앙교육서」는 개혁교회의 기독교 교육의 뿌리와 전통이 되게 되었다.

칼빈과 제네바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신앙교육서」를 작성한 이듬해인 1538년 화렐과 함께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Strassburg)로 떠나게 됨으로 「신앙교육서」를 실현해 볼 시간적 여유와 목회적 현장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본래 의도대로 제네바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1538년부터 1541년 제네바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3년 동안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머물면서 그는 상당한 지혜와 더 깊은 통찰력 그리고 엄청난 정신적 성숙을 이루었다. 공적으로는 더욱 유용한 인물로, 사적으로는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개혁자로서, 강론자로서, 신학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보다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준비가 되어 제네바로 돌아오게 되었다.

제네바에 돌아와 목회 활동을 재개 했을 때 칼빈은 조력자가 없다는 것과 제네바 시민들이 교리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리에 대한 지식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한 그는 제네바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확신했다. 이 일을 위해 그는 제일 먼저 아이들을 위한 교리 문답서를 만들었다.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는 1541년에 「제네바 교리 문답서」(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를 작성했다. 1537년의 이전 문서인 「신앙교육서」를 개작, 확대시켜 재편성하고, 문답 형식으로 그 내용을 정리했다. 「신앙교육서」가 신학적, 사상적인 면에서는 매우 특출하였지만 목회 현장의 적

용 과정에서는 약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앙교육서」가 단순히 기독교 교리의 요약과 신앙고백이어서 목회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였다. 그래서 그는 목회 현장에서 쉽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교리문답 형식에 맞출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깨닫고 문답 형식으로 개작을 하게 되었다.¹¹⁶⁾ 1537년의 「신앙교육서」를 55개 과목 총 373개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전체 구조를 바꾸어 매주 한 과목씩 교리교육을 하도록 개작하였다.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다섯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부분(제1-130문)은 사도신경을 해설함으로써 기독교의 기본신앙을 가르친다. 둘째 부분(제131-232문)은 십계명의 해설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친다. 셋째 부분(제233-295문)은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기도를 가르친다. 넷째 부분(제296-309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넷째 부분(제310-373문)은 성례를 가르친다. 초기에 나온 판에는 넷째 부분과 다섯째 부분이 하나로 묶여져 있기도 하다.¹¹⁷⁾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개혁 교회의 후기 교리문답과 비교해 볼 때 명백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 교리 문답은 어린이들이 암기하기에는 너무 길다. 어떤 때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자세한 많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껴서 연속적인 문답이 잘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 차원에서 볼 때는 분명한 진전을 이룬 것임에 틀림이 없다. 칼빈의 교리 문답은 내용과 형태 모두 전적으로 말하고 듣고 반응하는 깊은 개인적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 칼빈이 어린이들의 양육을 위해 바쳤던 공헌 가운데 하나이다. 칼빈은 교리문답을 자신의 구체적인 교육 방법으로 사용했다.¹¹⁸⁾

그렇다면 칼빈이 「신앙교육서」(Instruction in Faith)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

116)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p. 47.

117) 박일민, 「개혁교회의 신조」 (서울: 성광문화사, 1998), p. 75.

118)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pp. 50-51.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를 통하여 교육적인 중요성으로 삼았던 것은 무엇인가? 칼빈은 교회의 모든 영역을 교육적 차원으로 이해하였다. 칼빈의 교육신학적 기초는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이룬다. 칼빈의 신학적 기초가 되는 것은 카테키즘(Catechism) 즉 교리 교육이며 교리의 총체가 바로 「신앙교육서」(Instruction in Faith)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이다. 칼빈은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총체적 카테키즘(Catechism)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집필하였고 또한 실제로 그의 제네바 목회사역에서 이를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칼빈이 교육의 핵심으로 여겼던 교리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었으며, 칼빈이 밝힌 카테키즘의 교육적 차원이 무엇인가, 또한 이를 바탕으로 그가 카테키즘 교육의 실천의 장(場)에서 이루었던 교육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로 생각되어진다.

칼빈이 교육의 핵심으로 여겼던 교리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었는가와 칼빈이 밝힌 카테키즘의 교육적 차원이 무엇인가, 또한 칼빈의 교육의 장(場)인 교회, 가정, 학교에서의 카테키즘 교육에 대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중요 관점 이해

칼빈이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하여 교육의 핵심으로 여겼던 카테키즘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점이 무엇인가를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칼빈은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하여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등과 같은 기독교에 있어서 기초적인 진리를 초신자들과 학생들

에게 전수하려고 하였다. 그의 주된 목적은 창조주와 구세주이신 하나님, 죄로 타락한 인간, 구원, 교회, 그리고 종말 등의 기본적인 신앙교리를 알게 하고 일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경건한 신자를 양성하여 그들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을 선언하도록 성장시키는데 있었다. 칼빈은 그리스도는 신앙의 영원한 대상이심이 분명하며, 이 신앙의 대상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운 자비를 명상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였다.¹¹⁹⁾ 칼빈의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교회에서 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¹²⁰⁾

둘째로,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교회의 부패를 가져올 수 있는 불건전한 사상과 오류로부터 교회를 바르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술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칼빈은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총체적 카테키즘(Catechism)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집필하였고 또한 실제로 그의 제네바 목회 사역에서 이를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는 자기의 이성이 고안해 낸 것을 일체 믿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한 일에서는 어떤 불신이나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확신과 확고부동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또 교회는 그 받은 약속들을 전적으로 확신함으로써 신앙을 지탱하는 훌륭한 수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가장 훌륭한 인도자인 성령이 자기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¹²¹⁾

119) John Calvin, 「칼빈의 신앙교육서」, Ibid., p. 38. "Now, since all the promises of God are gathered together and confirmed in Christ, and are, so to speak, kept and accomplished in him, it appears without doubt that Christ is the perpetual object of faith. And in that object, faith contemplates all the riches of the divine mercy."

120) *Comm.*, Ephesians 4:13.

121) *Inst.*, 4.8.13. "In this way she will distrust all the inventions of her own reason; and when she leans on the word of God, will not waver in difference or hesitation, but rest in full assurance and unwavering constancy. Trusting to the liberal promises

라고 하였다. ‘말씀을 근거로 한 일’과 ‘그 받은 약속들을 전적으로 확신함으로써 신앙을 지탱하는 훌륭한 수단’은 교리를 의미한다. 교리는 기독교 공동체를 성령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적인 매개물이 되는 것이다. 칼빈의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이처럼 기독교 진리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교리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로,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기독교 진리의 근간이며 골격인 교리를 유지하고 전수하기 위하여 카테키즘 교육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회는 교리를 기초로 하여 세대와 세대간에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간이 되는 틀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통일된 역사적 교회가 교리에 의하여 세워지게 된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며, 모든 세대를 통하여 존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통일된 신앙으로 섬기게 할 목적으로 교리가 작성되었던 것이다.¹²²⁾

넷째로,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주의 만찬’의 거룩함을 보호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그들을 양육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카테키즘 교육의 자료가 된다. 또한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한 교리적 가르침에 대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하여 교회는 일치와 연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¹²³⁾

which she has received, she will have the means of nobly maintaining her faith, never doubting that the Holy Spirit is always present with her to be the perfect guide of her path.”

122) Thomas. F. Torrance, *The School of Faith: The Catechism of the Reformed Church* (London: James Clarke & Co., 1959), pp. 6-7.

123) *Comm.*, Romans 6:1-11.

칼빈은 세례와 성찬에 관한 기초적인 카테키즘 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생활을 하도록 하였고,¹²⁴⁾ 외형적인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구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구별의 외형적인 표지들은 바로 세례와 성찬인데,¹²⁵⁾ 칼빈은 이러한 표지들로 인하여 교회가 다른 조직들과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교회의 외적인 구별은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에 의한 카테키즘 교육을 통하여 내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의 중요한 역할은 개혁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표지인 말씀의 선포와 성례를 지키는 것¹²⁶⁾에 대한 신앙적 일치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다. 칼빈은 세례를 통한 신앙적 일치와 통일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례는 또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례라고 하는 표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였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선포가 있는 후 수세자는 모든 다른 믿는 자들과 더불어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¹²⁷⁾

교회 목회적 차원에서 가정과 교회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필수적인 공통 요소는 바로 세례이다. 세례의 신학적 의미는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부활의 관계에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표이며, 교회에 속한 자로서

124) 칼빈은 「신앙교육서」(Instruction in Faith) 제26-29절과 「제네바 교리 문답서」 제 310-373문에서 세례와 성찬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125) *Inst.*, 4.1.9.

126) *Inst.*, 4.1.10. ; John Calvin, 「칼빈의 신앙교육서」, pp. 69-74.

127) John Calvin, 「칼빈의 신앙교육서」, p. 71. 제28절 “Baptism serves likewise as our acknowledgement of faith in the sight of men; because it is a mark by which we publicly declare that we wish to be numbered among the people of God, to the end that we, together with all believers, may serve and honor, with one same religion, one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회를 통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¹²⁸⁾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세례와 카테키즘 교육을 통하여 성숙되고 당신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칼빈이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해서 교육의 핵심으로 여겼던 카테키즘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카테키즘 교육에 대한 칼빈의 기본입장과 원리를 이해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장과 원리를 기초로 하여 칼빈이 제네바 사역을 현대적 의미의 교육목회의 관점에서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칼빈에게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교회의 근본적인 기초와 틀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것은 가정과 교회와 세대간에 기독교 진리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카테키즘 교육 자료가 되며, 신앙 교육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적인 도구로 간주되었다. 또한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확고한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원리를 전수하는 기초로, 이것은 칼빈의 신앙 사상의 총체이며, 교육목회의 근본적인 도구이다.

칼빈은 교육을 통하여 개혁을 시도하였고, 개혁을 위해서 집필된 모든 그의 저서들도 교육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그의 핵심 저서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 「신앙교육서」, 그리고 「제네바 교리 문답서」에는 그의 신앙 사상의 근거를 이루는 교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칼빈은 교리와 교회 그리고 카테키즘 교육 문제를 철저히 다루어서 근대 개혁주의 교육신학의 근본적인 토양을 마련해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28) 정일웅, 「교육 목회학」, pp. 306-309.

4.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의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차원 이해

칼빈은 교리를 교회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의 핵심 내용이라고 간주하고 카테키즘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에 대해서 정준모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교리가 인지적, 전인적, 발전적 차원의 삼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¹²⁹⁾ 칼빈이 이처럼 교리를 세 단계로 나누게 된 이유는 이 단계들이 인간의 인격 안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의 과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교리의 인지적 차원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그 전인적 차원은 신자들의 삶과 신앙의 원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그 발전적 차원은 신자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필요하다.¹³⁰⁾

첫 번째 인지적 차원으로서의 교리는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¹³¹⁾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바른 인식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신앙은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¹³²⁾ 따라서 믿음의 대상과 내용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카테키즘이 신자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잘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야 한다. 칼빈은 카테키즘이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해 줄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었

129) 정준모, “존 칼빈의 교리교육론에 관한 연구”, p. 95.

130) Ibid.

131) *Comm.*, 1 Corinthians 2:9 ; John 4:23 ; *Inst.*, 1.1.1. “The sum of true wisdom, viz., the knowledge of God and of ourselves. Effects of the latter.”

132) John Calvin, 「칼빈의 신앙교육서」, p. 38. 제14절.

다. 따라서 교육이 필수적 요소인데 성경에 계시된 신앙의 내용인 교리를 인지적 차원에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선포하는 강론이 올바른 통로의 역할을 하지만, 또한 잘 가르치고 이해시키기 위한 카테키즘 교육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전인적 차원의 카테키즘이다. 전인적 차원은 신자의 인격과 삶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칼빈은 이 단계에서 차지하는 카테키즘 교육의 위치와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¹³³⁾ 인지적인 단계에서 신앙의 내용으로 인식된 카테키즘이 그 차원에서 머물게 되면, 카테키즘은 지식주의 혹은 기능주의의 소모품으로 전락할 뿐이다. 하지만 칼빈은 카테키즘이 지속적으로 인간의 인격과 삶에 연결되어 그 삶에 변화를 주고 또한 인격을 통해서 그 삶이 반드시 확증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교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전인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교리와 삶이 일치되고, 교리가 삶의 변화를 통하여 더욱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차원은 발전적 차원이다. 칼빈은 인지적 차원과 전인적 차원에서 성화와 성숙으로 이끄는 발전적 차원으로 카테키즘의 중요성을 격상시켰다. 발전적 차원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신자들이 교리에 의하여 신앙의 기초를 놓은 다음에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야 한다는 데 있다.¹³⁴⁾ 기독교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 초보적인 지식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적인 삶은 시작한 후에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 더 높은 단계로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한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과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현명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33) 정준모, “존 칼빈의 교리교육론에 관한 연구”, p. 96.

134) Ibid., p. 97.

칼빈은 성화와 성숙은 전생애를 통하여 매일 계속되는 과정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고 믿었다.¹³⁵⁾ 그리고 교리는 이러한 발전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교리를 교회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의 핵심 내용이라고 간주하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교육의 핵심인 카테키즘이 인지적 차원에서 신앙의 기초를 놓고, 전인적 차원에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발전적 차원에서 성화와 성숙의 자양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리는 영적인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이며 성화와 성숙으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교육에 있어서 지, 정, 의에 기초한 전인적이고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카테키즘의 세 가지 차원이 칼빈의 기독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요소이다.

5. 칼빈의 교육의 장(場)에 대한 이해

1) 교회에서의 카테키즘 교육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카테키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 그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교회교육의 연장이며, 보충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제네바 사역의 절정에 이른 시기나 생애 말년에 이르기까지 「신앙교육서」와 이를 개정한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중심으로 교리교육

135) *Inst.*, 4.8.12.

을 실시한 것을 보면 그가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한 카테키즘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카테키즘 교육의 중심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였던 칼빈은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실시하였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경건한 신자들이 양육되고 그러한 양육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일 역할을 하기 때문에,¹³⁶⁾ 칼빈은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에게도 매 주일 오후 집회 때 교리를 따라 강론하도록 하였다.¹³⁷⁾

교회건물은 예배의 장소로 사용됨과 동시에 카테키즘 교육의 학교로 사용되었다. 칼빈이 그의 교육활동에서 카테키즘 교육을 강조한 것은 카테키즘 교육을 통하여 전체적인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칼빈의 교회 교육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제네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칼빈이 의도했던 목적은 신약 교회의 본을 따라서 잘 정비된 개혁교회를 세우는 것과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모든 제네바 시민들의 매일의 삶에 순수한 기독교 교리를 심는 것이었다. 칼빈은 끊임없이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써, 각자의 정체성, 즉 자신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바르게 깨닫도록 교육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목적을 절절히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강론과 예배, 교리문답과 권징을 사용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그것을 성실히 적용하여 살도록 훈련받는 장소였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를 ‘개혁학교’(reform school)로 간주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역사적 제네바 교회는 하나의 교육자(an educator)로서 또한

136)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9), p. 203.

137) 정일웅, 「칼빈의 교리교육과 교육목회」, 「신학지남」, 통권 제223호 (1990년 3월호), p. 74.

하나의 훈육자(a discipliner)로서 그리고 하나의 보호자(a guardian)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¹³⁸⁾

2) 가정에서의 카테키즘 교육

가정은 인간의 초기의 삶을 형성하는 곳으로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장(場)이므로 매우 중요한 교육현장이다. 칼빈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일이 당연한 부모의 의무이며,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유아세례에서의 약속과 관련하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지워진 것으로 생각하였다.¹³⁹⁾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의 교육적 책임을 위임받은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칼빈은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기독교인 부모들의 의무이며 특권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카테키즘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철저하게 교리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만일 부모들이 카테키즘 교육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올바르게 가르친다면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일치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교회와 학교처럼 가정에서도 신앙의 기초 교리가 포함된 「신앙 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자녀들을 위한 카테키즘 교육의 지침서로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그는 제네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부모들에게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칼빈의 또 다른 강조 사항은 자녀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부모들이 먼저 가정에서 카테키즘 교육을 통하여 기초적인 신앙교육을 그들에게 잘

138)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pp. 80-81.

139) *Inst.*, 4.16.9.

시키도록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자녀들이 세례 문답을 받을 때에도 부모들은 함께 문답에 임함으로써 자녀들의 카테키즘 교육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을 다시 확인시켜 주어야 했다. 자녀들의 세례식 때에도 역시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것을 서약하여야 했다.¹⁴⁰⁾ 부모들이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자녀들이 세례문답에 임할 때에 부모들도 함께 입회인으로 참석하며,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의무를 계속적으로 감당할 것을 서약하게 한 것은 칼빈의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참된 종교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하나님께로 자신의 자녀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순수한 인식, 그리고 진실함으로 가르침을 얻도록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순수한 교리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이 보여주는 확실함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가르침을 전수하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물려준 부모의 유산이라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가정을 교회처럼 교리를 배우고 체험하는 공동체로 보았으며, 가정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부모들의 교육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로서 교회의 위치를 강조하였다. 칼빈은 가정교육을 교회의 총체적 교리교육을 위한

140) 황성철, 「칼빈의 교육목회」, pp. 92-93.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그는 교회의 가르침과 교육이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가정은 이런 특별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교육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였다. 가정은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하며 가정의 임무는 목사의 직무와 많은 유사점을 진다. 칼빈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즉 자녀 교육, 보호 양육의 책임은 곧 교회의 목회 사역의 형태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다.¹⁴¹⁾

3) 학교에서의 카테키즘 교육

칼빈의 사상 체계 안에서 교회와 학교는 상호 의존적이다.¹⁴²⁾ 교회는 학교와의 관계에서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결정해 주었고, 말씀과 성례의 목회를 통해서 그 목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해 주었다.

칼빈이 1536년에 제네바에 도착하기 전에 당시 학교의 상황은 형편없었다. 학교는 13세기부터 몇 곳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학교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마저 매우 빈약하였다.

스트라스부르그에 망명을 갔다가 1541년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교육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돌아왔다. ‘무지는 미신의 어머니이며, 문화는 종교와 자유의 시녀’라고 확신한 그는 제네바 시민을 개화시키고 교회를 갱신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칼빈은 제네바의 교육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칼빈은 제네바에 특별한 임무를 띤 인문 학교와 대학을 세웠다. 이곳의 학생

141) 정일웅, 「교육 목회학」, p. 323.

142) 칼빈은 교회가 학교에 대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기를 원하였다. 학교는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속에서 교육하고 복음적인 말씀으로 학생들의 생활을 교육하였다. 관리와 재정적인 범위에서도 학교는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자유로웠지만, 교회의 명령에 따라서 학교는 교회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그래서 학교는 이러한 명령을 시행해야 했으며, 칼빈은 이런 명령을 국가와 협력해서 결정하였다.

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강론의 직무와 세상의 여러 직무에 종사하도록 자질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속해 있었다.

칼빈은 학교교육에서 기독교적 교육과 인문교육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꾀하였다. 칼빈이 1538년에 작성한 제네바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일반 인문교육도 종교교육과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 점이 특기할만 하다. 일반 인문교육의 과목도 종교교육의 과목만큼 중요시되고 인문교육을 잘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종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을 통해서 각각 자기 영역에서 노래하며 그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모든 교육이 귀일한다.¹⁴³⁾

교육과정에 있어서 이곳에서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카테키즘과 성경공부를 해야 했다.¹⁴⁴⁾ 칼빈은 카테키즘의 교육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총체인 「신앙교육서」를 집필하고, 또 그 개작인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저술하여 교회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상호 유기적 관계성 속에서 철저히 조직적으로 교육하였다.

칼빈은 학교교육 이념을 교회교육 이념과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칼빈은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은 장소 측면에서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 각기 특성을 갖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교회교육의 연장으로서 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보았다.

칼빈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은 카테키즘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라고 하는 모든 교육의 장(場)에서

143) 김남식 편, 「칼빈주의 연구」 (서울: 백함출판사, 1997), p. 28.

144) 인문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칼빈은 비단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인문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이러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인 교리교육과 성경공부였다.

카테키즘 교육의 중추적 자료인 「신앙교육서」와 그 개작인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사용하였다. 칼빈은 교회의 연장선상에서 학교와 가정이라는 교육의 장을 바라보았고, 이 모든 교육의 현장들에서 이루어진 카테키즘 교육은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해서였다.

VI.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현대적 적용과 한계성

필자의 주장은 카테키즘 교육이 현대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앙을 바로 세우고 신앙에 대한 무지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카테키즘 교육이 현대에 와서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카테키즘 교육은 결코 진부하거나 낡아서 우리가 배제하여야 할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어지는 것이다.

본 장에서 필자는 카테키즘 교육의 현대적 적용점을 찾아보고 그 한계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현대적 적용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작성한 칼빈은 신자들의 신앙의 기초에 대한 무지와 바른 교리에 대한 가르침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한 지도서로서 무지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즉 구원의 진리와 삶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서를 통한 카테키즘 교육의 신학적 관점에서의 중요성은 신앙공동체의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을 전수하며, 기독교적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서의 신앙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있다.

또한 카테키즘 교육은 성경의 요약으로서 교리적 체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재빨리 신앙에 눈을 뜨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고 자신의 신앙의 입장을 확실히 하는 눈을 가지게 되어, 그러한 신앙의 교리적인 선(先)이해를 통해 성경의 전체를 보는 눈과 동시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기본적인 자질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카테키즘은 표준적인 신앙의 가르침을 통하여 일치된 그리스도 공동체의 신앙고백을 통해 신앙적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칼빈이 교육목회의 실재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카테키즘 교육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로 인하여 오염되고 변질되어가는 21세기 교회에 매우 유용하고 바람직한 기독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필자는 카테키즘 교육이 어떤 용도로 현대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초신자들을 위한 용도(신앙의 교육)

카테키즘은 원래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초신자들에게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던 행위에서 출발하였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카테키즘을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알아야 하며,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교육적 행위로 정의하였다. 칼빈 역시 교리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의 지침, 즉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알아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올바르게 제시하는 것이었다.¹⁴⁵⁾

카테키즘은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145) Jeremy Jackson,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김영재 역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98), p. 222.

중요했다.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성경 계시의 요약으로서 기존 교리적 체계를 가르침의 내용으로 적용했던 것이다. 칼빈의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매우 명료하고 담백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초신자들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경교리를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많은 기독교 출판물과 교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 신앙교육의 기초가 될만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의 복잡한 내용과 많은 분량으로 참된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교회는 그러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신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성경 전체의 진리를 요약하여 만들어진 칼빈의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카테키즘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교육적인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카테키즘 교육의 소중한 유산을 현대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칼빈이 제네바에서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 안에서 초신자 및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신앙을 체계화하는 용도(신앙의 강화)

「신앙교육서」나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신자의 신앙관을 세우는데 유익한 자료가 되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신앙관은 신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수반한다. 이러한 이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와 신앙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한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는 신앙관을 통하여 신념의 기본적인 체계를 가지고 신앙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신앙관의 확립은 기독교 구원의 진리에 대한 신앙체계의 확립하며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는 확립된 신앙관에 근거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해야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와 작정 그리고 섭리를 올바르게 인식시킨다. 그러므로 다양한 이데올로기적인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도 신자는 이러한 세계관으로 기독교 신앙을 견지할 수 있는 올바른 진리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체계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교육의 과제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언제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중심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관의 골격을 기초하고 체계화하는 골격은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한 카테키즘 교육을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3) 학습 세례 준비 교육에서의 사용(신앙의 고백)

신앙교육의 목적이 신앙고백이며 신앙고백은 신앙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앙교육과 신앙고백은 상호 유기적인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후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신앙교육서」를 만들었던 루터나 칼빈의 경우처럼, 칼빈의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다분히 고백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신앙교육서」나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카테키즘 교육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통일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다.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고백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은 한 몸인 교회가 이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교육을 함으로써 통일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고백을 위한 책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우리가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받아들

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였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구원을 성취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희망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신앙고백을 위해 카테키즘 교육의 중요성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현재 한국 교회 내에서 역사적 카테키즘 교육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 장은 학습과 세례문답교육에서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전통적이고 형식적이며, 또한 고답적인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신앙교육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교육은 일 년에 한 두 번 행하는 세례와 성찬의 예전과 연결되어 지극히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교회는 오늘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과도한 영향으로 신앙고백적 삶을 실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신앙적인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교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체되고 둔화되는 것은 확실한 신앙고백과 그 고백에 알맞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의식적이고 지식적인 종교생활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리교육이 단순히 학습과 세례의 준비를 위한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고백에 대한 바른 교리교육과 그에 따른 삶이 실천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전(全)영역으로 확대되어서 신앙고백을 성경의 기초 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칼빈이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해서 신앙고백이 제네바 교회 회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한 개혁의 큰 성과를 한국 교회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의식적인 학습과 세례문답에서 탈피하여 신앙고백적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카테키즘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현대적 적용의 한계성

카테키즘 교육은 칼빈의 목회의 중심이었으며 가장 기초적인 것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다. 칼빈은 카테키즘 교육을 교회는 물론 학교, 가정이라는 교육의 장(場)으로 확대 연결하여 실천하였으며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칼빈의 카테키즘을 비롯한 종교개혁 이후 시대의 카테키즘 교육은 오늘에 와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도외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적인 카테키즘을 현대 교회가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사용할 때 많은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교육적인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카테키즘을 단순히 카테키즘에 담겨 있는 교리적인 내용과 역사적인 가치만을 생각하고 가르침의 효과를 위한 방법적인 것을 다양하게 산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⁶⁾

종교개혁시대 이후의 이러한 카테키즘 교육이 오늘의 교회에 있어서의 적용과 실천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성을 몇 가지로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내용의 표현에 있어서 언어적 표현의 시대적 부적응을 말할 수 있겠다.¹⁴⁷⁾ 「신앙교육서」와 이를 바탕으로 개작되어 만들어진 「제네바 교리 문답서」가 저술된 것은 수백 년 전이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 책에 표현된 내용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언어소통에 있어서 장애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¹⁴⁸⁾

또한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개혁 교회의 교리문답과 비교해 볼 때 명백한

146) 정일웅,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pp. 346-348.

147) 정일웅 교수는 언어적 표현의 낙후성이라 일컫는다.

148) Ibid.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 교리문답은 어린이들이 암기하기에는 너무 길다는 것이다. 어떤 때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자세한 많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껴서 연속적인 문답이 잘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내용의 협의성이 현대적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윤리적 해답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내용의 기본적인 형식은 구원의 도리와 윤리적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에 대두되지 않았던 윤리적 문제들이 현대 산업화, 정보화 사회의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윤리적 지침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것 또한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이들 신앙교육서는 간단한 문답의 연역적 방법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주입식 일변도의 학습이 전제될 수 밖에 없다. 즉 교수학습방법의 낙후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의 신앙교육의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대적인 학습방법이 개발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 차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안겨다 줄 것임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가르침의 카테키즘이 낡고 오래된 학습법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서 머무르지 말고 현대의 교육목회에 적용되도록 방법과 개선점을 찾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VII. 결 론

1. 요약 및 결론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다원주의, 상대주의 등 기독교 기본 사상을 뒤흔들고 오염시키는 사상들이 만연한 가운데 흔들리고 표류하는 기독교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만 한다는 책임을 통감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만 한다.

특히 교육적 실천에 있어서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이 시대의 과제라고 여겨진다.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 곧 성경을 그 근간으로 하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은 우리 시대의 당면 과제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의 카테키즘 교육의 실천은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이 시대는 카테키즘 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신앙교육의 책임을 위해서 방법론의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려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도에서 필자는 칼빈의 교육사상을 살펴보고 특별히 그의 「신앙교육서」와 그 개작인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한 카테키즘 교육의 실재를 살펴보면서 칼빈이 그의 교육을 실천하려고 했던 목적, 방법, 내용들을 통해서 현대에 적용점들을 찾아보고, 그 적용에 있어서 한계점을 살펴서 그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7장에 걸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문제제기, 연구의 목적과 의의,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덧붙임으로써 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칼빈의 시대적 배경과 생애라는 논제로 본 연구의 선행 학습에 해당하는 칼빈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의 시대적 배경과 생애를 통해서 카테키즘 교육에 대한 실천의 삶을 살았던 칼빈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칼빈의 신학사상을 신관, 인간관, 성경관, 교회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서 그의 교육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칼빈사상의 핵심적인 근본원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며,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자라는 사실이다. 인간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세 가지 관점 즉, 타락 이전의 인간, 타락한 인간, 그리고 중생한 인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본래의 위치에서 타락하여 범죄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은 그의 존재의 전체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훼손되어졌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잔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가능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셔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 죄악을 지닌 진노의 자식들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극진하신 사랑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계속해서 필자는 칼빈의 성경관을 살펴보았다. 칼빈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의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는 확신을 견지하고 있었다. 칼빈은 성경을 인간들의 부주의와 태만과 허황된 생각으로부터 끼쳐질 피해와 변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진 하나님 자신의 조치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바로 파악하고, 이

해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으로 성경을 이해하였다. 또 그는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최선의 수단일 뿐 아니라 유일한 원천이며, 완벽한 것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성경의 권위의 기초를 성경의 신적 기원에 두고 있다. 성경의 권위는 믿음을 통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확립된다. 칼빈의 성경관을 말함에 있어서 신·구약을 모두 기독교론적으로 통일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을 찾을 수 있다. 칼빈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일한 사명에서 통일되어 있음을 말하여 구약과 신약의 매개, 내용, 형식에 있어서도 통일성을 가지게 됨을 역설했다.

칼빈의 교회관에 있어서 필자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표지 그리고 교회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성도들의 어머니’로 언급하였다. 또한 칼빈은 교회의 표지를 말씀과 성례라고 보았다. 교회의 기능에 있어서 칼빈은 ‘말씀선포’, ‘복음전파’ 그리고 ‘가르침’의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는데, 특히 칼빈은 말씀이나 성례전과 같은 성격의 기능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교육과 훈련을 아주 강조하였으며 그의 사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제4장에서는 칼빈의 교육사상을 살펴보았다. 칼빈에게 있어서 모든 가르침의 목적,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제네바 교리문답서」에도 그의 교육 목적이 잘 반영되고 있다. 칼빈의 이 교육목적은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도 적용된다. 칼빈에게 있어서 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을 모두 포괄하여 모든 교육에 있어서의 그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주제 내용으로 칼빈은 진실하고 오류가 없는 오직 하나의 원천, 즉 성경을 확실하게 받아들였다. 성경은 칼빈의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였다. 교육의 내용인 완전한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

시의 문제이고, 이것은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으며,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로 정리되어 카테키즘 교육의 핵심으로 체계화 되었다.

칼빈의 교육방법에 있어서 필자는 목회적 차원에서와 교수학습방법 면에서 살펴보았다. 목회적 측면에서 칼빈의 교육방법을 강론, 치리, 저술을 통한 교육방법으로 구분하였고, 교수학습방법의 측면에서 그의 교육방법은 그의 카테키즘 교육에 있어서 그가 사용하였던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교육하는 교수학습방법론으로 살펴보았다.

목회적 차원에서의 교육방법론 중 첫째로, 강론은 교리의 선포이므로 칼빈은 강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리를 전달하며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의 강론은 항상 교회를 위한 실제적인 관심에 있었고, 제네바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 속으로 직접 성경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칼빈의 강론은 교리문답이었다고 평가될 정도로, 그의 강론은 교리적이며 더욱이 그 교리의 중심에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가 위치하고 있었다.

목회적 차원에서의 두 번째 교육 방법론은 치리를 통한 교육이었다. 칼빈은 참된 교회를 구성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도구로서, 권정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칼빈은 교회의 치리를 통하여 교회 성도들의 도덕적인 품행을 요구하였고 또한 개선시키고자하는 교정적, 교육적 결과를 기대하였다. 칼빈은 나약하고 불완전한 교회 성도들을 보조물인 치리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과 믿음을 통해 나타난 삶을 도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치리를 교육적 도구로 보았다.

목회적 차원에서의 세 번째 교육 방법론은 저술을 통한 교육으로 칼빈의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로 평가되어질 수 있다. 칼빈의 저서와 목회의 중심은 언제

나 교육에 있었다. 실제로 칼빈 저서의 대부분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술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와도 같은 매우 중요한 저술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방법론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던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한 교육방법은 첫째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문답식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셋째로, 반복적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였다.

필자가 본 논문을 통하여 강조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제5장이다.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실천을 살펴보면서 앞서 카테키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현재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신앙의 이름 아래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기독교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기독교 신앙의 우위성을 확립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완결성을 지키기 위해 카테키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필자는 주장하였다.

현대적 의미를 내포하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카테키즘이라는 개념으로 교육의 원리와 목표 그리고 내용 등을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던 칼빈의 교육에 있어서 교회의 기초와 교육의 근본이 되는 교리의 총체인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진정한 신앙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은 오늘날에도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필자는 당시의 카테키즘 교육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살펴본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의 중요 관점에 대해서는 첫째로, 칼빈은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하여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등과 같은 기독교에 있어서 기초적인 진리를 초신자들과 학생들에게 전수하려고

하였다는 것과 둘째로,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교회의 부패를 가져올 수 있는 불건전한 사상과 오류로부터 교회를 바르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술되었다는 것, 셋째로, 기독교 진리의 근간이며 골격인 교리를 유지하고 전수하기 위하여 카테키즘 교육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넷째로, 세례와 성찬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구별하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카테키즘 교육의 자료가 된다는 것과, 또한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의 중요한 역할은 개혁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표지인 말씀의 선포와 성례를 지키는 것에 대한 신앙적 일치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살펴보았다.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한 칼빈의 카테키즘 교육은 인지적, 전인적, 발전적 차원의 세 가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단계들은 인간의 인격 안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의 과정으로 교리의 인지적 차원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전인적 차원은 신자들의 삶과 신앙의 원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그 발전적 차원은 신자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칼빈의 교육의 장(場)에 대하여 교회, 가정, 학교에서의 카테키즘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칼빈은 교회의 연장선상에서 학교와 가정이라는 장을 바라보았고 이 모든 교육의 장에서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하여 카테키즘 교육을 실천하였다.

21세기에 있어서 이러한 교육의 장들을 통하여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통한 카테키즘 교육의 적용에 있어서는 내용과 표현상의 시대적 부적응성과 내용의 협의성, 교수학습방법의 낙후성 등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카테키즘 교육은 성경의 요약으로서 교리적 체계를 중심으로 한 표준적 신앙의 가르침을 제공하여, 초신자들을 위한 신앙의 교

육 용도와 신앙의 강화를 위하여 신앙을 체계화하는 용도, 그리고 학습과 세례 준비 교육에 사용함으로써 통일된 교리 안에서 신앙고백을 하게 하는 용도로 그 중요성과 의미는 주목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낡고 오래된 학습법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현대의 교육목회에 적용될 수 있는 개선된 카테키즘 교육방법론들을 개발하고 실천하여, 다윈주의와 상대주의의 기독교 기본 사상에 대한 도전들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2. 제 언

첫째로, 가장 먼저 한국 교회는 새로운 신자와 기존 신자들에 대한 카테키즘 교육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카테키즘의 교육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바른 기초를 확립하여 붓물처럼 밀려오는 사상적 도전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앙인임을 자처하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도 올바른 교리적 기초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음은 자못 많은 우려를 남기게 된다. 어떠한 이단적 사상이나 유사 사상들의 도전에도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를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둘째로, 의식적인 성례를 극복하고 성례를 통한 교훈과 의미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는 성찬을 통하여 단순한 회개의 촉구 하고 눈물과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바른 신앙의 정립이 우선되어져서 건전한 성도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카테키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형식적이고 감정적인 수준을 뛰어 넘어 성례전의 교리적, 교육적 중요성을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카테키즘 교육이 활발히 실천되어야

한다.

셋째로, 「신앙교육서」와 「제네바 교리 문답서」의 현대적 개발이 있어야 한다. 현대인들이 잘 이해하여 성경 기초 교리 자료로 활용하고 신자의 기초 신앙관 확립과 기본 골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또한 성경해석의 기본 원리와 방향을 제공받고 기본적 삶의 원리와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어들을 정비하고 내용을 풍성하게 하여 다양성을 가진 현대인들이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성과 체계성이 요구되어지는 만큼 개교회나 담임교역자에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교단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필자는 칼빈의 교육사상 중에서 특별히 카테키즘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기독교 근간을 흔드는 많은 사상들을 막아낼 방패는 바른 교리의 확립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바른 교리의 확립을 위하여 카테키즘 교육이 절실히 요청되어진다고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면서 카테키즘 교육이 현대적으로 수용되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잘 정비되고, 보완될 필요성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서적

- 김남식 편. 「칼빈주의 연구」. 서울: 백합출판사, 1997.
-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 박일민. 「개혁교회의 신조」. 서울: 성광문화사, 1998.
-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9.
- 오인탁.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 1990.
- 이상철. 「장로교회 신조 강해」. 전주: 도서출판 명문, 2002.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이형기. 「세계교회사Ⅱ」.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4.
-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82.
- 정일웅. 「교회 목회학」.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7.
- _____.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2.
-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3.
- 홍치모. 「종교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2.

2. 번역 서적

Barna, George. *Real Teens*. 이성범 역. 「리얼 티스: 모자이크 세대에 관한 보

- 고서」. 서울: 반도PP, 2003.
- Calvin, John. 「칼빈의 신앙교육서」.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 Doumergue, Emile.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Dunn, Samuel. 「요한 칼빈의 신학 진수」. 김득용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Jackson, Jeremey.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김영재 역.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98.
- Kistemaker, Simon. 「칼빈주의」. 김정훈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 Latourette, Kenneth S. *A History of Christianity*. 윤두혁 역. 「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 Lohse, Bernhard. 「기독교 교리의 역사」. 차종순 역. 서울: 목양사, 1986.
- McKim, Donald K.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Niesel, Wilhelm. 「칼빈의 신약」.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 Ozment, Steven. *The Age of Reform 1250-2550*. 손두환 강정진 공역. 「개혁의 시대 1250-1550」. 서울: 도서출판 칼빈서적, 1998.
- Parker, T. H. L.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Tow, Timothy.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임성호 역.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8.
-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류형기 편역. 「기독교회사」. 서울: 한국 기독교 문화원, 1988.
- Weber, Otto.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서울: 풍만출판사, 1985.

3. 외국 서적

Beza, Theodore. "Life of John Calvin", In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vol. 1, ed. by Henry Beveridge and Jules Bonne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Bouwsma, William J. *John Calvin: A Sixteenth-Century Portra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Calvin, John.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in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ed. and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_____.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ewis Battles.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Cross, F. L.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Fant, Clyde E. JR and William M. Pinson. Jr. *20 Centuries of Great Preaching* Vol.3. Texas: Wordsbooks Publisher, 1971.

Ferguson, Sinclair B. *New Dictionary of Theology*.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8.

Ganoczy, Alexandre. *The Young Calvin*. trans. David Foxgrover and Wade Provo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7.

Hunter, A. Mitchell. *The Teaching of Calvin*. Giasgow: Jackson and Co., 1920.

McEwen, James E. *The Faith of John Knox*. London: Lutherworth Press, 1961.

Rogers, Jack B. and Donald K. McKim.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 An Historical Approach.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79.

Torrance, Thomas. F. *The School of Faith: The Catechism of the Reformed Church*. London: James Clarke & Co., 1959.

Towns, Elmer L.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4. 논문 및 정기간행물

문석호. “포스트모더니즘과 개혁 신앙”. 『신학지남』. 통권 제249호. 1996. 겨울호.

서철원. “종교다원주의와 구속 신앙”. 『신학지남』. 통권 제250호. 1997. 봄호.

유현철. “Calvin의 교리 교육에 대한 현대 교회의 적용 가능성 연구”. 목회학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정일웅. “칼빈의 교리교육과 교육목회”. 『신학지남』. 통권 제223호. 1990. 3월호.

정준모. “존 칼빈의 교리교육론에 관한 연구”. 신학박사 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2.